

코스피	-29.67	2,656.17
코스닥	-2.57	891.91
환율(원/달러)	+6.1	1,339.80

휘발유(원/리터)	1637.77	▼ (-0.45)
경유(원/리터)	1537.59	▼ (-1.01)
LPG(원/리터)	969.89	▼ (-0.13)
(전국 평균)		출처=한국석유공사 오일파트
WTI(달러, 19일)	82.63	▼ (-0.09)

‘블랙웰 훈풍’...10만전자·20만닉스 청신호

〈차세대 AI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AI) 플랫폼 ‘블랙웰(Blackwell)’을 발표하면서 추론용 AI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블랙웰 효과’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국내 반도체주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세대 AI 플랫폼 ‘블랙웰’ 공개...반도체주 훈풍

엔비디아의 블랙웰 공개 이후 엔비디아발 수혜가 예상되는 국내 반도체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0분 기준 개인투자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각각 1116억원, 1650억원 순매수했다. 이날(오후 2시20분 기준) 개인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9091억원어치 순매수했는데 이 가운데 30%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투자한 것이다.

삼성전자에 대해 지난 2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온 외국인도 이날 삼성전자를 390억원어치 순매수하며 매수세로 돌아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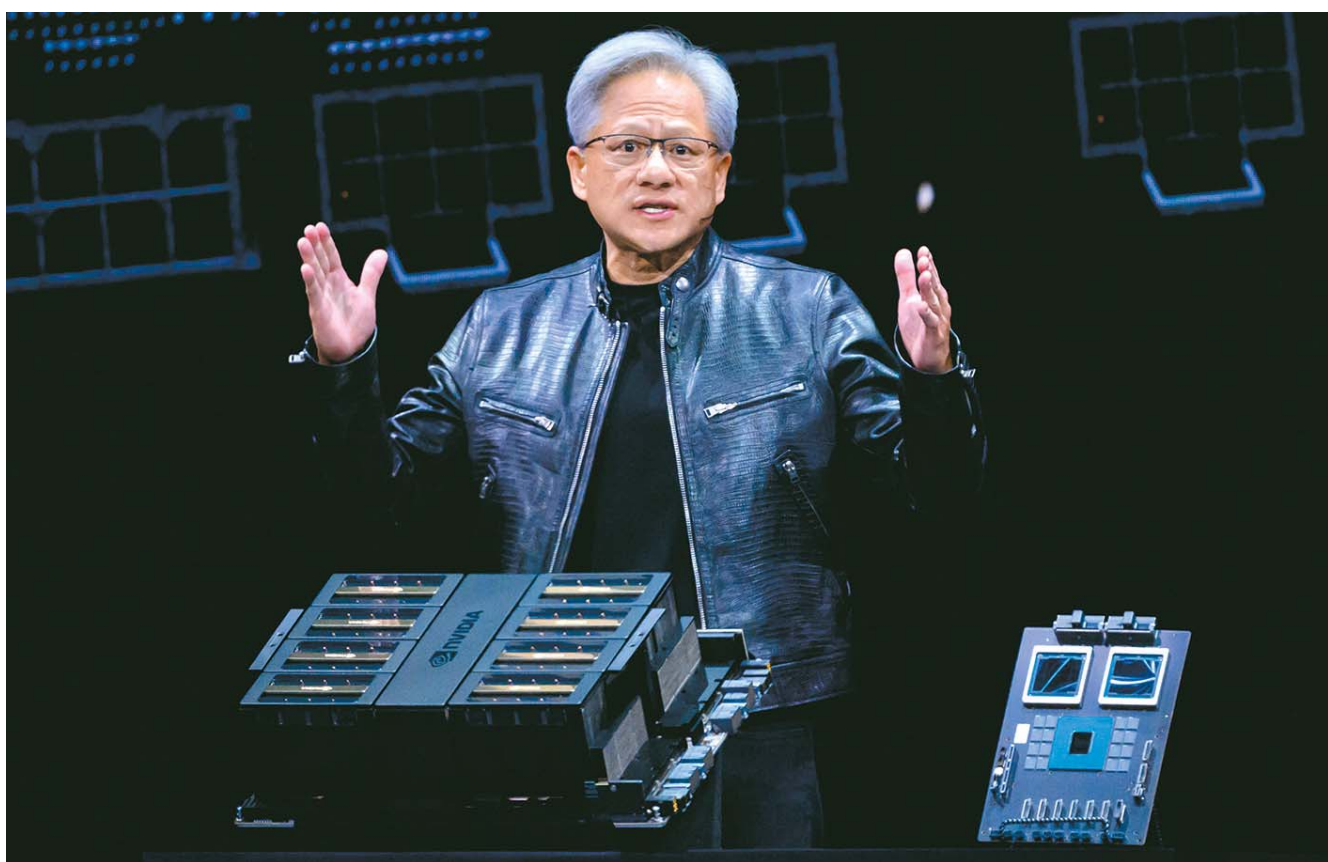
국내 반도체 대장주로 불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투심이 집중된 데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발표가 크게 작용했다. 차세대 AI 칩 공개로 반도체 산업 전반에 성장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엔비디아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린 ‘GTC 2024’에서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인 ‘블랙웰’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AI 칩을 공개했다.

블랙웰은 2년 전 엔비디아가 출시한 호퍼(Hopper) 아키텍처의 후속 기술로 미국의 통계학자이자 수학자인 ‘데이비드 헤럴드 블랙웰(David Harold Blackwell)’을 기리고자 그의 이름을 따왔다.

블랙웰 기반 차세대 AI 칩인 B200은 엔비디아 기존 ‘H100’의 성능을 뛰어넘는 역대 GPU 중 최대 크기다. 전작 B100 대비 AI 학습 속도가 최대 5배 빨라졌고 성능도 개선됐다. 두 개의 엔비디아 B200을 엔비디아 그레이스 CPU에 연결한 ‘GB200’도 함께 공개했다. 블랙웰은 올해 말 출시 예정이며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젠스 황 엔비디아 CEO는 “현재 최고급 GPU인 H100은 환상적이지만 더 큰 GPU가 필요하다”며 “엔비디아는 지난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스 황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SAP 센터에서 개최된 개발자 콘퍼런스 GTC 2024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엔비디아 차세대 인공지능칩 ‘블랙웰’ 공개 주목 증권가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목표가 ‘줄상향’ 저PBR 밀려 소외됐던 반도체주, 급부상 기대감

30년 동안 딥 러닝, AI와 같은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가속 컴퓨팅을 추구해왔고 블랙웰 GPU는 우리 시대를 정의하는 생생형 AI라는 산업혁명을 구동하는 엔진”이라고 설명했다.

◇저PBR에 밀려 소외된 반도체에 별다른

한동안 국내 반도체 종목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저PBR로 열풍에 소외되면서 주가도 지지부진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지난 8일 52주 최고가인 17만4900원을 기록한 후 외인 매도세에 주가가 하향 흐름을 보이면서 16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연초부터 8만전자 기대감이 나왔지만 7만원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올해 D램과 낸드 판매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시장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에서는 SK하

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 상승이 점쳐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은 지난해 부진을 딛고 올 1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예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는 4조7855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가 4조원대 영업이익을 회복하는 것은 지난 2022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이다.

SK하이닉스도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호조가 예상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로 5세대인 HBM3E의 본격 양산에 들어갔으며 이달 말부터 제품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백길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99억달러로 전월 수출액 중 19%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난해 이 비중이 12%였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한 수준”이라며 “올 1분기 국내 메모리반도

체 기업들의 실적 역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AI칩 직접 수혜 예상”...목표가 줄상향

이러한 전망에 증권가에서도 반도체 대장주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목표가 눈높이를 높이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추론 중심 AI 시장이 확대되면 메모리 및 파운드리 업체도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선 올 들어 SK하이닉스가 20만닉스 고지에 오를 것으로 전망한 증권사는 6곳이다. SK증권이 기존 19만원에서 22만원으로 목표가를 상향해 국내 주요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했다. KB증권과 상상인증권, BNK증권도 목표가를 21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미래에셋증권과 IBK투자증권도 20만원으로 목표가를 높였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미래에셋증권이 목표가를 기존 9만원에서 10만5000원으로 높였고 메리츠증권과 SK증권도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10만전자를 향한 전망에 힘을 실었다.

김기영 기자 giryeong@ekn.kr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뉴빌리지 도입”

윤 대통령, 21번째 ‘민생토론회’

“도시공간 조성·거주비 절감 중요 신축 중소 주택 10만호 전월세 공급”

윤석열 대통령(사진)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갖춘 환경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과 정부가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 문래에 위치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의 중요성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방침을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종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 현실화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종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공시가격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증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



생을 악화시켜왔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방침을 밝히며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차원의 주택 공급 방침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우리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할 것”이라며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더해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재생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기조로 노후한 원도심을 개조하는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도시재생이 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주장했다.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소개하며 “정부는 이 정비 작업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 등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배달앱 1위〉

‘무료배달’ 쿠팡이츠, 배민 ‘정조준’

‘와우’ 회원 대상 26일부터 서비스 점유율·멤버십 회원 늘리기 포석 요기요 추격·배민 ‘아성’ 위협 주목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2193만명 (전년비 2.3% ↓)	602만7043명 (전년비 16.6% ↓)	574만2933명 (전년비 64.7% ↓)

국내 배달앱 후발주자인 쿠팡이츠가 모기업 쿠팡의 유료멤버십 와우를 등에 업고 ‘무료배달’을 승부수로 던져 배달앱 시장에서 파장을 몰고올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음식 배달비는 고물가 속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켜 논란이 돼 온 만큼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서비스를 기반으로 배달앱 수요를 흡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더욱이 쿠팡이츠가 지난해 쿠팡의 와우할인 혜택을 도입해 크게 성장하면서 업계 2위 요기요를 바짝 따라잡고 있는 데다 이번 무료배달이 시장에서 통할 경우 업계 1위 배달의민족(배민)의 아성마저 흔들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배달앱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쿠팡의 유료멤버십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무제한 무료배달’ 서비스를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

기존에 쿠팡이츠는 와우 회원에게 ‘음식가격 할인’을 제공해왔다. 이번 개편으로 음식가격 할인 대신 ‘무제한 무료배달’로 전환하기로 했다. 와우회원은 △무료배달과 △한집배달 중 원하는 배달을 선택해 이용 가능하다. 둘 중 묶음 배달만 무로다.

다만, 무료 배달 서비스는 쿠팡이츠의 스마트요금제에 가입한 음식점에만 적용된다. 스마트 요금제는 주문 증가수수료 9.8%에 외식업주 부담 배달비를 1900~2900원 사이로 쿠팡이츠가 자동으로 최저화해 책정하는 방식이다. 쿠팡이츠가 책정한 배달비를 음식점주가 부담하고, 차액은 쿠팡이츠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같은 무료배달 혜택은 한시적이 아닌 당분간 영구적으로 진행한다는 게 쿠팡이츠의 방침이다.

업계는 쿠팡이츠 무료배달이 배달앱 시장에서 점유율 높이는 동시에 신규 멤버십 회원 늘리려는 전략으로 풀이한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월 쿠팡이츠의 월간활성사용자(MAU)는 574만2933명으로 2위 요기요(602만7043명)의 턱밑까지 추격했다. 쿠팡이츠 MAU는 전년 대비 64.7% 늘어난 반면 요기요의 MAU는 16.6% 줄었다.

업계에선 이미 지난달 말부터 쿠팡이츠가 주간활성사용자(WAU) 기준 요기요를 앞섰고 있는 점에서 이르면 이달 쿠팡이츠가 MAU 기준으로도 2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에선 1위 배달의민족이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요기요와 쿠팡이츠가 2위를 두고 다투고 있다. 쿠팡이츠가 사용자 수가 빠르게 늘며 2위 요기요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이미 1400만 명의 멤버십 와우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쿠팡 와우회원은 로켓배송 혜택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여기에 쿠팡이츠가 제공하는 무료배달을 추가 결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소비자들 사이 쿠팡 멤버십에 메리트가 더욱 늘기 가능성이 크다. 쿠팡이츠의 무료배달이 신규 멤버십 회원 늘리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서예은 기자 pr9028@ekn.kr

▶기사 2면에 계속

22대 국회도 기후·환경전문가들이 ‘에너지정책’ 주무르나

이슈분석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확정됐다. 여야 모두 기후, 환경 전문가들이 당선권에 배치된 가운데 에너지전문가는 배제된 모양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지난 정부 당시 환경 전문가들 위주로 국회가 구성돼 에너지정책이 난맥상에 빠졌던 현상이 이번에도 반복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여당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일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는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7명, 기후에너지전문가 정태림씨가 21번에 배치됐다.

반면 정통 에너지·경제전문가인 박주현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비명단에 오르는 데 그쳤다. 업계에서는 박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어 의외라는 반응이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은 지난 총선부터 줄곧 환경전문가를 배치시켰지만 여당까지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유산과 여당 간 엇박자를 놓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 비례대표에 에너지전문가 배제...박주현 교수만 예비명단 올라 ‘유력’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에너지 분야 이해도 높지만 에너지 안보·시장 원칙 등 중요시 하던 정부·여당 비현실적 목소리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는 국민 의지도 에너지정책을 환경론자들에게 넘겨줄려는 것 같다”며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물론 21번 정태림씨의 경우도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신이지만 위촉연구원으로 4~5개월 근무한 이력이 전부로 알고 있다. 지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간극이 큰 비례대표 명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당선이 유력한 김소희 사무총장의 경우 기존에 국회에서 활동하던 환경전문가 출신들과 달리 에너지 분야와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합리적 성향의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에너지전문가가 빠진 것은 아쉽지만 김 총장은 에너지업계에서 합리적인 환경전문가로 통한다”며 “김 총장이 국회에 입성해 야당이 주도하던 기후, 에너지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국제협력분과 민간위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환경부 중앙환경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기후환경 분야뿐 아니라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지난 정부 당시 민주당은 사실상 단독으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탄소중립을 법제화했다. 전례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탄소중립을 주도한 국가들 대부분이 다짐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 법제화를 해버렸다”며 “이 때문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장기전원가스수급계획 등 국가 차원의 에너지계획이 영향을 받아 비현실적 계획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수급업인 우리나라는 에너지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수적이다. 이미 재생에너지 증가

에 따른 제주도 전력공급 과잉과 출력 제어가 심화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에너지 믹스 상 다변화와 함께 석탄, 석유 자원과 CCUS 활용, 장기비축 가능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COP26을 개최한 영국도 탄소중립을 위한 섹터별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시민단체가 소송 걸었고 정부가 저서 올해까지 구체적 목표 제시하기로 했다”며 “영국 외에 다른 서방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백악관의 정책 문건에 포함됐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수치화, 법제화를 해버렸다.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2050 탄소중립은 영원히 저성장, 저자본의 덩어리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성장자본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환경적 목표의 동시 달성, 기후위기에 대비한 기후적용 투자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인구절벽, 재정절벽, 연금절벽을 넘어설 수 있는 비전 제시를 통해 에너지안보, 국가안보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is@ekn.kr

OK저축銀, JB금융 지분도 확대 '핫플레이어' 부상...다음 행보는?

OK저축은행이 DGB금융지주 지분을 늘리며 최대 주주가 된 가운데, JB금융지주 지분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OK저축은행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늘리고 있다는 입장인데, 지방금융지주의 주요 주주로 영향력이 커지면서 업계가 향후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 JB금융 지분 10.63%까지 높아져...얼라인과 3.41% 차이

19일 공시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JB금융지주 총 25만6542주를 장내매수했다.

지난 11일 주가 1만3854원에 4만 1000주를 매입했고, 다음 날 주가 1만 3806원에 13만주를 추가 매입했다. 또 지난 13일에는 1만3444원에 8만5542주를 매수했다. OK저축은행의 JB금융지주 지분율은 기존 10.5%에서 10.63%로 0.13%포인트(p) 높아졌다.

OK저축은행은 현재 JB금융의 3대 주주로 있다. 이번 주식 매입에 따라 2대 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14.04%)과 지분 차이는 3.41%p 좁혀졌다.

OK저축은행의 JB금융 주식 매입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지난 1월 25일 JB금융 주식 42만1062주를 매입해 지분율을

JB금융 주식 지난해 추가 매수율들어 세번째 매입, 지분율 10.63% DGB금융 지분 확대 최대 주주로 OK저축은행측 "단순 투자 목적"

기존 10%에서 10.21%로 높였고, 이달 4~7일 추가로 36만6860주를 매입해 10.5%까지 지분율을 확대했다.

JB금융의 경우 2대 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가 경영 참여 등을 통해 장악력을 높이려고 하는 상황이다. OK저축은행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주식 매입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JB금융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등 임원진 선입에서 아예 물러나 있는 것은 아니다. JB금융은 오는 28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OK저축은행이 추천한 이명상 법무법인 지안 대표변호사를 신임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 시중은행 전환 앞둔 DGB금융에선 '대주주'로

OK저축은행은 DGB금융 지분도 매입하며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DGB금융은 지난해 말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공



JB금융그룹

단에서 OK저축은행으로 변경됐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

OK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말 DGB금융 지분 7.53%를 보유하며 2대 주주로 있었다. 지난해 말 지분율을 8.49%로 확대하며 1대 주주가 됐다. 현재 보유 주식 수는 약 1435만주로, 약 162만주가 더 늘었다.

기존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같은 기간 DGB금융 지분을 8%에서

7.99%로 축소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29일 DGB금융 주식 2235주를 줄였다.

OK저축은행은 DGB금융의 지분 매입 또한 단순 투자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DGB금융의 대주주가 바뀌면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 받는다. 대구은행은 지난달 7일 금융당국에 시중은행 전환 인가를 신청



DGB대구은행

해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구주 적격성 등을 볼 것으로 보이는데, 심사 과정에서 DGB금융의 대주주가 OK저축은행으로 바뀐 만큼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인가 신청 당시의 대주주(국민연금공단)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OK저축은행이 경영 참여가 아닌 단순 투자 목적으로 DGB금융

의 지분을 확대한 만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알려졌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방금융지주 주식 매입은 단순 투자 목적"이라며 "OK저축은행은 수익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해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치열해지는 자동차 '韓·日전'... 현대차·토요타 전장 넓어진다

브라질·인도 등 신흥시장서 격돌 전기차·하이브리드로 '안방 공략'

현대자동차와 토요타가 전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은 물론 브라질·인도 등 신흥 시장에서도 연이어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정면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자동차 시장 주도권을 두고 한일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현대차는 전기차, 토요타는 하이브리드차를 각각 앞세워 서로의 '안방'을 공략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나란히 브라질 생산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는 2032년까지 11억달러(약 1조5000억원)를 투자한다. 이를 통해 브라질 상파울루주 피라시카바 공장을 증설하고 친환경 수소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져간다는 생각이다. 2012년 가동을 시작한 현대차 브라질 공장은 연간 21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지녔다.

이런 상황에 토요타는 브라질에 110억달러(약 2조9000억원)를 신규 투자하기로 했다. 50억달러(약 1조3000억원)는 2026년까지, 나머지 60억달러(약 1조6000억원)는 2030년까지 낸다.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 능력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전망이다.

브라질은 2022년 기준 인구 2억1000여명(세계 7위), 국내총생산(GDP) 1조9200억 달러(11위)의 남미 최대 경제국이다. 완성차 생산량 세계 8위이자 내수 6위의 시장을 지닌 곳이기도 하다. 현대차와 토요타는 지난 2020년부터 브라질 판매 순위에서 4~5위를 번갈아가며 기



현대차 울산공장 전기차 생산라인. 현대차는 지난 2022년 일본에 재진출을 선언한 이후 아이오닉 5 등 전기차를 현지에서 판매 중이다.



토요타 5세대 프리우스. 토요타코리아는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를 국내 시장에 최근 론칭했다.

록하고 있다. 작년에는 토요타(19만 2309대)가 현대차(18만6247대)보다 6000여대 더 많이 팔았다.

양사는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인도에서도 격전을 예고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인도에서 역대 최대인 108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며 이곳을 글로벌 최대 생산기지로 키워나가고 있다. 최근 1년간 3차례에 걸쳐 발표한 현지 투자 규모만 해도 5조원에 달한다.

현대차는 지난해 5월 인도 생산법인(HMI)이 있는 타밀나두주와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2032년까지 10년간 2000억루피(약 3조2000억원)를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1월에는 인도 타밀나두주 자동차 시장의 전동화 전환 지원과 수소 밸리 혁신 허브 구축에 618억루피(약 9900억원)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같은 달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포럼에서는 탈레가온 공장 자산 인수를 완료하는 동시에 마하라슈트라주에 600억루피(약 9600억원)를 낼겠다고 했

다. 현대차보다 인도에 늦게 진입한 토요타 역시 제3공장 설립을 위한 물밑작업에 한창이다. 업계에서는 토요타가 4억달러(약 5300억원) 이상을 배팅해 현지 생산 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대 견조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자동차 시장도 2021년 대비 13%가량 확대됐다. 부가가치가 높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만 놓고 보면 2020년 70만대였던 판매 규모가 작년 200만대로 급성장했다.

현대차와 토요타는 미국, 유럽 등 기존 선진 시장에서도 정면 대결을 펼치고 있다. 현대차는 앞선 전동화 기술력을 앞세워 전기차 신모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토요타는 하이브리드차 판매에 중점을 두고 관련 마케팅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현대차는 이르면 올해 안에 일본에 캐스퍼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2022

년 일본 재진출을 선언한 이후 아이오닉 5 등을 비대면으로 판매하고 있다.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지만 현지 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선호도가 높은 경차를 투입해 분위기를 반전시킨다는 구상이다.

토요타는 2019년 '노재팬' 열풍 후폭풍을 이겨내고 국내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토요타의 고급 브랜드 렉서스는 지난 1~2월 한국에서 1917대의 차를 판매했다. BMW, 메르세데스-벤츠, 볼보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토요타는 같은 기간 1522대를 팔아 5위를 차지했다. 토요타의 이 기간 실적은 전년 동기(960대) 대비 58.5% 뛴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차는 전기차, 토요타는 하이브리드차에 강점이 있다는 게 향후 판도를 바꾸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현우 기자 yes@ekn.kr

K-방산, '라이벌' 고전에 수출 확대 반사이익

美 장거리 자주포 프로그램 난항 보잉T-7A 결합여전...수출 '청신호'

유럽·중동 지역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K-방산의 선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체계와 경쟁할 무기체계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보잉이 개발 중인 T-7A 레드호크의 전력화 시점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조종사 좌석 탈출과 비행 제어 시스템 등에서 문제가 발견된 탓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미국 내에서 보잉을 쟁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보잉에 대한 신뢰도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보잉은 B-737 맥스 기종의 결합 등 각종 약재를 마주한 상황이다. 민항기 패널도 떨어져나가는 업체의 항공기를 5세대 전투기 조종사 훈련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공군과 해군의 사이가 나쁜 것도 KAI에게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공군이 보잉의 T-7A를 훈련기로 채택한 상황에서 해군은 다른 기종을 선택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기체 성능에서도 KAI의 T-50 계열 항공기가 T-7A에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T-7 계열 항공기의 최대 이륙중량은 5500kg 수준이지만, KAI가 생산 중인 T-50 계열 항공기는 1만3500kg에 육박한다.

최대 속력도 T-7은 마하 1 미만이지만, T-50 계열은 마하 1.5에 달한다. 기체 골격 내구도 역시 FA-50의 우세가 점쳐진다.

미 해군의 신규 훈련기 도입 프로젝트(UJTS) 수주 시 KAI는 200대 규모의 수출 물량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미 공군과 해군의 추가 사업을 따 내면 300대에 달하는 항공기를 공급하는 등 경전투기·고등훈련기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다.



FA-50 경전투기

글로벌 자주포 수출 시장 1위를 질주 중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D 글로벌 자주포 수출 시장 1위를 무난히 수성할 전망이다.

미국의 M-1299 자주포 개발 프로그램이 결합 문제 등으로 인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간 까닭이다. 이는 미 육군의 사거리 연장 화포(ERCA)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무기체계로, 차세대 자주포 강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특히 58구경장 포신과 첨단 사격통제 시스템(FCS) 및 자동화 시스템에 힘입어 사거리를 70km 이상으로 연장하고 정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차체 중량 대비 포신을 과도하게 길게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155mm 포탄의 사거리를 연장하는 포탄이 개발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이는 항력감소탄과 로켓보추진탄의 추진체를 복합 적용한 것으로, K-9 적용 시 최대 사거리가 30%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는 K-9와 풍산의 새로운 포탄이 결합된 '패키지 달'도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항력감소포탄(HEBB) 기준 K-9의 최대 사거리는 40km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산 무기체계들의 '정출어람'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지 생산 등 수출 대상국과의 원활한 협력관계와 빠른 애프터서비스(A/S)를 비롯한 요소들도 2027년 글로벌 방산 수출 4강 진입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니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저출산·고령화에 2028년부터 경제활동인구·취업자 줄어든다

고용정보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추가 필요인력 전망 발표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속에 오는 2028년부터는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모두 감소세로 전환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선 오는 2032년까지 90만명이 달하는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고용정보원은 향후 인구 전망과 산업별 전망 등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2022~2032년) 인력수급 전망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을 19일 발표했다.

우선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오는 2022~2032년 31만6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전 10년간(2012~2022년) 증가 폭 314만 명의 10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오는 2027년 2948만5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8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서 2032년엔 2923만8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15~64세 경제활동인구로 놓고 보면 더 일찍 감소세가 시작돼 오는 2032년까지 170만3000명이 소감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같은 기간 201만9000명 증가하며 전체 경제활동인

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 2022년 11.6%에서 오는 2032년 18.4%까지 올라가게 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2022년 63.9%에서 오는 2032년 63.1%로 후퇴할 전망이다. 특히 청년층(15~29세)의 경우 49.8%에서 48.1%로 하락 폭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력 공급 감소 속에 15세 이상 취업자도 오는 2028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 2878만900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32년에는 2839만 9000명으로 내려간다.

2027년까지 증가할 인원을 고려하면 2022~2032년 30만9000명이 순증하긴 하지만 역시 지난 10년간 증가 폭(313만 4000명)의 10분의 1 수준이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2028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 2022년 62.1%에서 오는 2032년엔 61.3%로 0.8%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고용정보원은 내다봤다.

업종·직종별로 세부적으로 보면 일단 고령화 속에 돌봄과 의료수가 증가하면서 보건복지업 취업자가 99만8000명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과 전문과학기술업도 디지털 전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가 예상돼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제조업(-14만5000명), 건설업(-12만6000명), 농림어업(-9만4000명) 취업자는 오는 2032년까지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종환 기자 axjh@ekn.kr

▶기사 1면에서 계속

반면에 쿠팡의 무료배달 서비스가 기존 외우 할인 혜택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업계 일각의 견해도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배달 주문금액에 따라 외우 할인 혜택(주문금액 10% 수준 할인)이 더 유리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서비스를 도입해도 기존 외우 할인 혜택을 아예 없애는 것은 아니다. 쿠팡이츠는 외우 회원을 대상으로 5월말까지 기존 외우할인 혜택과 무료 배달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서비스를 출시해도 기존 외우 할인 혜택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앞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쿠팡이츠가 기존 외우할인과 무료배달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쿠팡이츠가 무료배달 서비스 도입으로 배달업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욱 높여 나갈 것으로 분석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1인가구가 많아 무료배달이 효용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은 주문금액이 적은 만큼 대부분이 무료 배달을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양광 KPN/보

‘저가 공세’ 中 태양광업계 구조조정 칼바람

세계 1위 태양광 업체 룽지그린에너지 수익성 악화로 최대 30% 대규모 정리해고

세계 1위 태양광 업체인 중국의 룽지(隆基·L ongi) 그린에너지가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다. 중국 태양광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펼쳐왔던 태양광 제품 저가 공세가 이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등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면서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올 연말부터 태양광 산업 통합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8일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룽지그린에너지가 전체 직원의 최대 30%를 감원하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직원이 약 8만명에 달한 것을 감안하면 2만4000명이 감원되는 셈이다.

2012년 당시 4068명에 불과했던 룽지그린에너지의 직원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 등에 힘입어 2022년말 6만 601명으로 대폭 불어났다. 룽지그린에너지는 작년도도 신규 채용을 이어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룽지그린에너지는 작년 11월 수습직원과 공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수천명에 달하는 정리해고에 나섰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전 세계로 수년간 확장해왔던 흐름의 반전”이라고 지적했다.

룽지그린에너지는 감원 규모가 30%가 아닌 5%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성명을 통해 “태양광 섹터는 점점 더 경쟁적인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시장 변화에 적응하고 조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력을 최적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주목할 부분은 구조조정에 나선 태양광 기업은 룽지그린에너지만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 태양광 업계는 글로벌 제조를 장악하고 있지만 최근 몇 달 동안 해고와 투자계획 중단 등을 겪고 있다”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태양광 산업은 과도한 생산능력, 인수합병, 파산 가능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이처럼 중국 태양광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선 이유는 이들이 생산하는 태양광 제품이 터

없이 낮은 수준에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PV인 포링크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모듈 가격은 2022년 1월 와트(W)당 0.27달러에서 지난 13일 0.11달러로 반토막 이상 낮다.

이에 따라 중국 제조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생산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팔거나 생산을 아예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룽지그린에너지도 지난해 판매 가격이 큰 폭으로 인하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현재 룽지그린에너지 주가는 2021년 최고점 대비 70% 가까이 폭락한 상황이다.

룽지그린에너지는 감원 이외에도 차(茶) 및 커피 제공 중단, 출장 중단, 흑백으로 인쇄물 출력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공세로 글로벌 생산능력이 수요를 큰 폭으로 웃돌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블룸버그 산하 에너지조사기관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글로벌 태양광 설치용량은 25만 2000메가와트(MW)로 집계됐는데 생산능력은 98만1000MW에 달했다.

BNEF는 또 최근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폴리실리콘 과잉공급으로 올해 생산될 수 있는 태양광 모듈의 규모가 무려 1.1테라와트(TW)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제품의 기초 원료다.

각국 정부는 자국 태양광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지원책을 이어가지만 가격 압박 등으로 인센티브가 극도로 파격적이지 않는 한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할 것이라고 BNEF는 지적했다. BNEF는 유럽,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 발표된 신규 태양광 공장 계획이 줄줄이 취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태양광 업황이 올해 말부터 반전돼 내년부터 생산마진이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배경으로 기업 인수합병, 수요공급 균형 회복 등을 꼽았다.

BNEF는 또 저렴해진 태양광 패널이 수요 급증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글로벌 신규 태양광 설치량은 전년대비 72%로 사상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그래서 언제쯤?” 갈 길 먼 1기 신도시

공공 재건축은 없다 <중>

과도한 공공기여, 신도시 재건축 발목 분당 제외한 일산·산본·중동 등 지역 재조환·기부채납 절충 없이 사업 난항



1기 신도시 분당 시범단지 조감도. 지난 2021년 10월 1기 신도시 최초로 통합재건축을 목표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선도지구 지정에 나서고 있다.

1기 신도시 분당 시범단지 조감도. 지난 2021년 10월 1기 신도시 최초로 통합재건축을 목표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선도지구 지정에 나서고 있다.

상 제공해야 한다. 1기 신도시시는 정부가 특별법에서 정한대로 공공기여를 한다면 33%나 된다. 서울시의 신속통합 기획보다 기여분이 많다. 1기 신도시시는 33%포인트(p)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그에 맞는 현금이나 임대주택, 기반시설, 생활SOC 등을 다양하게 채납해야 한다.

건설업계는 더 높게 보고 있다. 최근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최대 43%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본계획상 용적률 상한선이 500%인 현재 용적률 200% ‘A 아파트’가 특별법을 적용받으면 750%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 용적률 550% 중 300%는 10~40%를, 나머지 250%는 40~70%를 환수해야 한다. 중간값을 적용할 경우 전체 증가분 약 43%가 공공기여로 환수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1기 신도시 중 분당구 정도만이 이 같은 과도한 기부채납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평촌, 산본, 중동이나 일산 등에서 사업성을 장담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기부채납이 재건

축 주체들의 의지를 꺾는다고 보고 있다.

정부도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주민의 동의율 빈도에 따라서 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 지역 주민들도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으면 10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동의율을 끌어 모으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

1군 건설사도 분당 등 사업성이 있는 곳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지를 참여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게다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여전히 살아있는 한 과도한 기부채납과 더불어 치솟는 공사비까지 감당할 정도의 분담금은 사업추진 관계자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전반적인 주택·부동산 경기 침체도 걸림돌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자체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10년 이상 늦췄다고 보고 있다. 즉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서울에 마지막 남아 있는 노후 주택 지구들에 대해서도 1기 신도시와 같은 조건의 규제 완화 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사업성이 있는 곳들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전체 건설사들의 시공 능력도 한계가 있다. 건설사들이 우선 ‘돈이 되는’ 서울 지역 내 노후 주택 지구들에 집중하고, 10년 후에나 1기 신도시들의 재건축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급등한 공사비, 15~20층 이상이 밀집돼 사업성 보장을 위해선 50층 안팎의 초고층 재건축이 불가피한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주택 수요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김재경 투미건설실소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이를 유예하거나 절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지난해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더위 속에 양산을 쓴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KPN/보

올여름 폭염 올까...“평년보다 기온 높을 확률 50%”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듯

봄이 시작되면서 올 여름철 날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9일 기상청 ‘2024년 여름 기후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23.4~24.0도)보다 높을 확률은 50%이고 비수확 확률은 30%, 낮을 확률은 20%로 전망된다.

오는 6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 동안 기온이 상승해 고온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겠다.

7~8월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수량은 평년(662.7~790.5mm) 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다.

여름철 동안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리겠다.

여름철 날씨에 가장 큰 변수는 엘니뇨나 라니냐 발생 여부에 달렸다고 보인다.

엘니뇨는 감시구역의 3개월 이동평균한 해수면온도 편차가 +0.5도 이상 나타나는 달이 5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 첫 달을 엘니뇨의 시작으로 본다.

반대로 라니냐는 해수면온도 편차가 -0.5도 이하 이상 나타나는 달이 5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말한다.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가 여름철 동안 점차 하강해 중립 또는 라니냐로 발달

가능성이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오는 4~6월 사이 강력한 엘니뇨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내놓고 있다.

오는 4~6월 엘니뇨가 점차 약화돼 ‘중립’ 단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80%가량이고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해 있을 확률은 각각 10%로 전망됐다.

엘니뇨가 중립 단계로 전환된다는 것은 해수면 온도가 엘니뇨와 라니냐도 아닌 상태를 말한다.

엘니뇨는 겨울철에 한반도를 따뜻하고 눈비가 많이 내리도록 영향을 준다.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한 남풍을 일으켜 덥고 강수량 많은 날씨를 보인다.

WMO는 지난해 11월에서 올해 1월 사이 엘니뇨의 강도가 가장 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엘니뇨는 역대 ‘5대 엘니뇨’ 안에 든다.

강력한 엘니뇨는 지난해 전 세계가 역대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기상청은 엘니뇨에서 중립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동아시아에서는 고유의 기후특성과 북극해빙, 대륙의 눈덮임, 인도양 등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여름철에 대한 상세한 3개월 전망(6월~8월)을 오는 5월 23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사람, 그곳에 DB의 꿈이 있다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보험을 만드는 꿈

고객의 내일이 풍요로워지는 금융을 만드는 꿈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기술을 만드는 꿈

보험

DB손해보험 DB생명

금융

DB금융투자 DB자산운용
DB저축은행 DB캐피탈

반도체·IT

DB아이텍 DB글로벌칩
DB Inc.

DB금융서비스 DB FIS DB메탈 DB월드 DB월드건설 DB커뮤니케이션즈

한강벨트 최전선... '친문현역' vs '오세훈계'

<고민정>

<오신환>

충선격전지, 이곳

<서울 광진을>

'한강 벨트' 최전선인 서울 광진구는 이번 총선에서 서울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지역구 재선에 도전하는 고민정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서울 관악에서 재선을 지낸 오신환 전 의원이 이름을 올리면서 일찌감치 양당 대진표가 확정됐다.

역대 총선 결과만 놓고 보면 서울 광진구는 지역구가 신설된 제15대 총선 때부터 민주당 성향 정당이 한 번도 내준 적 없는 민주당 텃밭이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지역구에서 20년에 걸쳐 5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21대 총선에서 고민정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누르고 지역구를 물려 받는데 성공했다.

오신환 전 의원은 서울시 정부 부시장을 지낸 '친오세훈계'다. 오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때 고 의원에 패배한 오 시장의 설욕 대리전으로 3선에 도전한다. 오 시장은 직전 총선에서 정치 신인이나 다른 없던 고 의원에겐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 오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집권당 프리미엄과 함께 오 시장 체제 서울시 행정 지원을 기대한다.

그러나 고 의원과 오 전 의원은 각각 과거와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친문재인(친문)계 초선인 고 의원은 현재 당의 비주류로서 당의 전폭적 지원을 받기 쉽지 않을 것만 관측이 나온다. 당 주류 친이재명(친명)계 중심의 현 지도부에서 유일한 선출직 비주류 최고위원을 꿰찻지만 친문이 주류였던 지난 총선 때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전 의원 역시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힘겨운 도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들도 제기된다. 그는 비록 중앙-지방 정부 집권당 소속이지만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의 당 비주류다. 오랫동안 민주당 후보가 강세를 보인 이 지역구에 마땅한 연고도 없다.

광진을 지역구는 2030 인구 및 청년 1인 가구가 35.1%이고, 호남 출신 인구도 3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통계 구조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이다.

다만 지난 대통령과 서울시장 선거에선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했고, 지방선거에서도 12년 만에 국민의힘 소속인 광진구청장이 탄생했다. 이에 이번 총선의 승부를 속단할 수 없다는 관측



왼쪽부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가 광진을 지역구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고민정 "지역 변화·발전 지속 역할 필요" vs 오신환 "중앙-지방 정부 집권 프리미엄"

서울 광진을 지역구 주요 총선 출마자

후보	고민정(민주당)	오신환(국민의힘)
출생 연도	1979년(서울)	1979년(서울)
출생 학력	경희대(국제캠퍼스) 중어중문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주요 경력	-KBS 30기 아나운서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제4회 서울시 시의원 -제19·20대 국회의원 -제25대 서울시 정무부시장
주요 공약	-수서역 SRT 강변역까지 연장 -2호선 지하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짜피' 유치 -KT 첨단업무복합단지 대기업 유치	-독성로-자양로 도시철도 신설 -동서울터미널 입체 개발 -서울주거안심종합센터 유치 -서울형 안심 기숙사 설치

도 있다.

실제로 대학생 등 20~30대가 몰려 살아가는 '스윙보터'로 꼽히는 화양동에서 보수정당 지지세가 높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보수세가 강했던 고 의원-추 전 장관이 거주하고 있는 구의3동과 오 시장이 거주하고 있는 자양3동의 경우에는 보수정당 지지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게 여론의 분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광진을 지역구에 현역으로 있는 고 의원은 민주당의 단수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했다. 고 의원은 현역 의원인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광진구의 변화와 발전을 자신의 손으로 반드시 마무리해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고 후보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동서울터미널 메가복합개발을 제시했다. 수서역 SRT를 강변역까지 연장하고, 2호선 지하화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연계해 광진구를 동북권 메가 교통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젊은층 표심 잡기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짜피' 강북 캠퍼스 유치, 희망두배청년통장 확대, 청년 월세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KT 첨단업무복합단지 대기업 유치 △복합시설·생활체육공간·녹지공원 조성 △경로당 주5일 점심제공 △1인 가구 반려동물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 등도 약속했다.

고 의원은 지난 16일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로 세우고, 광진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오 전 의원도 단수 공천을 받아 광진구에 출마했다. 오 전 의원은 오 시장과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오 전 의원은 오세훈 시장 4선 서울시장에서 정무부시장을 지내면서 거둔 성과를 강조한다. 그는 이 시기에 자양4동을 재개발 속도를 높이는 정비사업 방식 '신속 통합기획'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정상화했다는 것이다.

오 전 의원은 지역 공약으로 △독성로·자양로 도시철도 신설 △서울지하철 7호선 증차 △2호선 지하화 △건물의 용적률·충수제한 유연화 △동서울터미널 입체 개발(지하 터미널 구축, 지상 공원·쇼핑몰·오피스 신축) 등을

내놨다.

청년을 위해서 서울형 안심 기숙사 설치와 어학·자격증 응시료 전액 지원도 약속했다.

△서울주거안심종합센터 유치(주거취약자 임대주택 지원, 실직·가정폭력·재난재해 피해자 임시주택 지원) △서울시립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오 전 의원은 "광진구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보석 같은 도시"라며 "4.10 총선에서 당선돼 서울시와 호흡을 맞춰 광진의 미래를 여는 '진짜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고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오 시장과 치열한 접전을 펼쳤던 만큼 이번 총선에서도 고 의원과 오 전 의원 간 만만찮은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정치권에선 보고 있다.

자양시장에서 자영업업을 하는 김모(57)씨는 "광진구에 대해 잘 아는, 아무래도 하던 사람이 잘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구의3동에 거주하는 최모(35)씨는 "광진구에 5년째 거주하면서 무엇이(좋은) 바뀌었는지 체감할 수 없었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화양동에 혼자 거주하며 취업 준비 중인 김모(29)씨는 "지지는 당이 딱히 없다"며 "청년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은 후보를 선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관세는 오르무중이다. 광진을 지역구는 여론조사 업체에 따라 오차 범위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종섭·황상무' 이견에 비례 공천 논란까지 국민의힘, 총선 3주 앞두고 '당정 갈등' 확산

4·10 총선을 3주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당정 갈등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황상무 시민사회수석과 이종섭 호주대사의 거취를 두고 공개적으로 입장 차이를 표출하면서다.

여기에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놓고 당내 친윤석열(친윤)계인 이철규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갈등 전선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비대위원장은 '이종섭·황상무 논란'과 관련해 "기존(입장)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황 수석과 이 대사에 대한 논란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민감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다"며 "국민들께서 총선 앞에 다른 이슈보다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 대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전날 임명과 출국 과정엔 문제가 없고 법적 절차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고

위공직자수사처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 위원장 생각과 같다. 다만 이 대사의 귀국 시점에서 입장이 달라진다.

한 위원장은 "공수처가 즉각 소환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소환도 안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기자 회합 테러' 발언을 한 황 수석 거취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당의 시각 차이가 명확히 갈린다.

앞서 한 위원장과 나경원·안철수 공동 선대위원장 등은 황 수석의 '자진 사퇴'를 공개 촉구했지만, 대통령실은 황 수석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퇴 요구엔 선을 긋고 있다고 알려졌다. 오히려 이를 문제 삼고 있는 야권 공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이 이 대사와 황 수석에 대한 거취 표명이 없을 경우 여당으로서는 악재를 안은 상태로 총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실과 제2의 갈등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정치권의 관측이 제기된다. 윤수현 기자

이재명 대표 불출석에 대장동 재판 파행 재판부 "계속 이러면 강제소환 고려" 경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연기하며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가 불출석을 불허했지만, 그는 강원지역 선거유세를 이

유로 법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직전 공판인 지난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위해 오전에 불출석했다가 오후에야 지각 출석했다.

검찰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무단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헌법상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

할 때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투표권 행사라는 중요한 절차에 대해 당 대표 활동에 조금의 여지를 주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신병을 강제소환도 확보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검찰의 인식은 너무나 헌법하고 괴리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이 선거일인 내달 10일까지 불출석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결국 재판기일은 재판장이 결정할 수밖에 없고, 이 대표는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한다"라며 "선거 기간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하는데, 그때 강제 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되도록 출석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 측이 "선거의 중요성", "과잉 금지원칙" 등을 거론하며 항의하자 재판부는 "변호인들과 토론하고 싶지 않다"며 언짢은 기색을 내비쳤다.

변호인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과 설전을 벌이자 재판부가 "정치는 법정 밖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수현 기자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복지미디어 그룹

복지TV

장애인신문

윌페어뉴스
Welfarenews.net

복지 TV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장애인복지채널로 전국 모든 지역에 송출되는 사회복지 전문방송입니다

장애인 소외계층의 참여와 권리행사,보장을 위한 국내 최초 장애계 전문지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에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며, 심도 있게 전달하는 인터넷 뉴스입니다

skylife 188 KTolleh 219 SKBtv 504 LG 173
윌페어뉴스 Welfarenews.net http://www.welfarenews.net/

4대銀 평균 연봉 1억2000만원 육박

1인 평균급여 1억1600만원, 2.9% ↑...남성, 여성보다 평균 3000만원 ↑



주요 시중은행 연봉 평균이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중은행과 금융지주 직원(임원 제외)의 연봉 평균이 1억2000만원, 1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은행원의 경우 연봉이 여성보다 평균 3000만원 많아 1억3000만원을 넘어섰다.

19일 4개 시중은행(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의 '2023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직원 1인 평균 급여는 1억1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1억1275만원) 대비 2.9% 늘어난 수치다.

은행별 평균 급여는 △KB국민 1억2000만원 △하나 1억1900만원 △신한 1억1300만원 △우리 1억1200만원 순이었다. 연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은행은 우리은행(6.7%)이며 가장 낮은 곳은 신한은행(0%)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4대 은행의 남성 평균 연봉(1억3375만원)이 여성(1억125만원)보다 3250만원이나 많았다. 여성의 보수가 남성 연봉 76%에 그친 셈이다. 여성 직원 중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남성보다 크고, 평균 근속 연수도 남성보다 짧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남·여 평균 급여 격차가 가장 큰 곳은 신한은행(4000만원)이다. 하나은행의 남성 직원 평균 연봉은 1억4300만원에 달했다.

금융지주사의 경우 평균 연봉이 2억원

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직급이나 근무 연차가 높은 직원들이 쏠려있는 영향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4개 금융지주(KB·하나·우리·NH농협)의 평균 직원 급여는 1억7100만원이었다. 이는 전년(1억6925만원)과 비교해 1% 정도 늘어난 수치다.

금융지주 연봉도 KB(1억9100만원)가 가장 많았다. 반면 시중은행과 달리 하나금융이 가장 낮아 신한(1억7300만원), 우리(1억6700만원), 하나(1억5300만원) 순을 나타냈다. 연봉 증가율도 KB(8.5%)가 신한(5.5%)과 하나(3.4%)를 뛰어넘었다. 우리금융의 경우 1인당 급여가 1억8900만원에서 1억6700만원으로 오히려 약 11%(2200만원) 줄었다.

이러한 가운데, 전체 지원 수와 지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말 4개 은행에 재직 중인 직원은 모두 5만 5164명으로 2022년말(5만6248명) 대비 1.9%(1084명) 줄어들었다. 희망퇴직 등을 통해 직원을 줄인 영향이다.

1년 새 4개 은행의 영업점(지점·출장소·사무소) 57곳이 문을 닫았다. 이에 총영업점 수는 2022년말 2900개에서 2023년말 2843개로 2% 축소됐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에서 1년간 영업점 수가 59개 줄었다. 반대로 하나은행의 영업점은 4곳 늘었다. 박경현 기자

예금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 IPO 재추진

작년 10월 철회 후 5개월만...내년 상반기 주식 10% 이상 IPO 통해 매각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보험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다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투자심리 위축 등을 이유로 기업공개(IPO) 계획을 철회한 뒤 5개월 만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열린 제224차 회의에서 '서울보증보험 자본매각 추진계획 수정안'(이하 로드맵)을 심의 및 의결했다. 로드맵 수정 방향으로 기존 로드맵의 큰 틀은 유지하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강화했다. 예보는 "위원들은 시장 가격 발견 및 후속 매각의 용이성을 고려할 때 IPO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내년 상반기 내 예보가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지분(93.85%) 중 원칙적으로 전체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기업공개(IPO)를 통해 매각(구주매출)하기로 결정했다.

소수지분 추가매각과 관련해서는 상장 완료 후 상환기금 청산 전까지 입찰 또는 블록세일 등을 통해 수 차례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1회 매각 물량을 특정하지 않고, 투자자 수요 등 시장 상



서울보증보험.

황을 고려하여 추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경영권 자본매각에 대해서도 서울보증보험 업무의 성격과 범위, 보증보험산업 관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검토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장 시기, 매각물량, 공모가격 등은 추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확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수년 전 신단을 통한 경영 효율화, 주주환원 정책 강화 등 기업가치 제고방안(밸류업)을 마련해 예보·금융당국과 함께 IPO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박경현 기자

외화예금 20억달러 감소...엔화, 4.6억달러 ↑

지난달 거주자 외화예금이 약 20억 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을 보면 2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961억 3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19억7000만 달러 줄었다. 지난 1월 57억8000만 달러 줄어든 데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의미한다. 주체별로 보면 기업예금 잔액은 807억5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21억 2000만 달러 감소했다. 반면 개인예금은 1억5000만 달러 늘어난 153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통화 종류별로는 미국 달러화 잔액이 778억7000만 달러로 25억3000만 달러 줄었다.

한은은 "통관 기준 수출·수입 규모가 1월 1091억 달러에서 2월 1005억 달러로 줄었고, 일부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달러화예금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엔화(98억6000만 달러)와 유로화(60억7000만 달러) 예금은 각각 4억 6000만 달러, 1억1800만 달러 늘었다. 특히 엔화 예금은 엔화가 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강세 전환 기대 등으로 증가했다. 유로화 예금은 일부 기업의 수출대금 일시 예치 등으로 늘었다. 송두리 기자

'기후위기' 대응 452조 쏟아...시중銀 동참

정부·정책금융·5대 시중銀...2030년까지 452조 정책금융 투입
수출주도 韓 경제에 악영향 없도록 EU 탄소국경제도 적극 대처
김주현 위원장 "미래세대 위한 기후위기 대응 의미있는 첫 걸음"
2030년 온실가스 배출 8597만톤 감축·5대銀, 신재생E에 9조 출자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이 국내 기업들의 '기후 위기' 대응을 돕기 위해 2030년까지 총 45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탄소중립 관련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수출주도의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예상돼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상협 1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상협 위원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5대 시중은행장과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면서 "정부, 정책금융기관, 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미 있는 첫 걸음마를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해 산

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2030년까지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연평균 자금 공급량은 지난 5년 평균인 연 36조원 대비 연 60조원으로 67%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이 약 8597만(t)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30년까지 국가 감축목표의 29.5% 수준이다.

태양광, 풍력,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을 위해 KB, 신한, 우리, 하나, NH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이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 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들은 14조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한다.

정부는 20%를 출자하는 산업은행의 위험흡수 역할을 감안해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 펀드 출자 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부담을 경감,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 188조원 중 자체 조달분을 제외한 160조원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성하기 위한 모험자본의 일부를 공급, 연기금이나 보험사, 공제회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미중립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현행 9.2%에서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2030년 21.6%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 밖에 민간 합동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탄소포집, 수소에너지, 온실가스 고장, 친환경패키징 등 기후기술 분야에 9조원을 투자한다. 기후기술 분야는 향후 연평균 24.5%의 시장 성장에 예상되는 유망한 분야지만,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이 더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기후기술 산업분야에서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최대 3년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해 2030년까지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고, 혁신성장펀드에서 5조원을, 성장사다리펀드에서 1조원을 각각 끌어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후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은행이 여신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연내 금융권과 공동으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만들고, 국내 금융권의 기후 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조정호 회장 재선임...추가 주주환원 정책 '시선 집중'

보험사 주총은 지금 메리츠금융지주 이사회

오너이자 최대주주 조정호 회장 재선임, 사내이사 임기 연장 '눈길'
이상훈·조흥희·안동현 씨 재선임...금융·법률 전문가 구성 '탄탄'
자사주 매각 등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 이어가...'추가 자사주 매입'

메리츠금융지주가 임기 만료시기 도래에 따라 조정호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를 연장한다. 이사진은 법률전문가 출신의 높은 비중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주주총회 이후 내용을 주주환원 정책 방향에도 시선이 모인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는 오는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사외이사 선임의 건을 비롯한 안건을 결의한다.

이번 주총에서는 오너이자 메리츠금융 최대주인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해 임기를 연장한다. 또한 이상훈 법무법인 삼우 대표 변호사, 조흥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각각 사외이사로 재선임한다.

메리츠금융은 세명의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면서 금융과 법률분야 전문가들을 두루 포진한 현재와 같은 멤버 구성을



메리츠금융지주가 오는 22일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어갈 방침이다. 법률 전문가로 꼽히는 이 변호사는 앞서 서울 북부지법 판사와 서울 고등법원 판사, 전주지법군산지원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발을 들인 조 고문은 남양주세무서장, 국제청 법인세과장, 국제청 혁신기획담당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과장, 국제청 법인납세국장·징세법무과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국제청은 나온 뒤에는

메리츠금융지주 이사회 현황

성명	직위	이사 최근 선임일	임기
김용범(부회장)	사내이사	2023년 3월 17일	2026년 3월
조정호(회장)	사내이사	2021년 3월 26일	2027년 3월
이상훈	사외이사	2022년 3월 24일	2026년 3월
안동현	사외이사	2022년 3월 24일	2026년 3월
조흥희	사외이사	2022년 3월 24일	2026년 3월
김명애(女)	사외이사	2023년 3월 17일	2025년 3월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과 메리츠금융 사외이사직 외에도 SK케미칼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다.

안 교수는 경제 및 재무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앞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로얄뱅크오브스코틀랜드 퀀트 전략 부부장,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여성 사외이사는 지난해 합류한 김명애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활동하고 있으며 임기는 내년 주총까지다. 김 교수는 메리츠금융이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영입한 인물로, 2021년 3월 자회사인 메리츠화재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임기 만료 후 메리츠금융지주로 자리를 옮겼다. 김 교수는 금융권과 학계를 두루 거친 인물로 한국장기신용은행, 한국신용정보,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숭실대 금융학부 연구교수 등을 거쳤다.

메리츠금융은 이미 지난해 말 최고경영자(CEO)에서 대규모 인사이동이 이뤄진 바 있어 이번 주총에서 많은 안건을 다루지 않는다. 지난해 말 인사를 통해 김용범 전 메리츠화재 대표이사 부회장과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

장을 각각 그룹부장으로 승진시키고 화재와 증권에 각각 김중현 대표이사, 장원재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한편, 메리츠금융이 추후 내용을 주주환원책에도 시선이 모인다. 최근 대규모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는 지난 15일에도 자사주 870만1000주(약 4000억원)를 소각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메리츠금융이 자사주 취득을 발표하면서 전량 소각을 예고한 물량이다. 이달 말에는 또 다른 자사주 취득신탁 계약도 종료됨에 따라 2400억원 물량을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메리츠금융은 총 64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지난해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 주당 현금배당금(2360원)을 결의하는 한편 신규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도 주총을 기점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김용범 부회장은 지난달 22일 연간 실적발표 후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주총일에 열릴 주총 후 이사회에서 추가 자사주 매입 결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토스뱅크 '안심보상제' 23억 피해 회복 도와

국내 은행 중 유일하게 보이스피싱·부정송금 등 금융사기 피해 보상 운영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돕는 토스뱅크 '안심보상제'가 지난 2년간 총 23억원 상당의 피해 회복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부정송금 등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정책을 운영 중인 것은 국내 은행 중 토스뱅크가 처음이다.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고객들이 접수한 금융사기 피해 총 3150건을 대상으로 23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왔다. 19일 밝혔다. 고객들이 겪은 피해는 보

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83건, 중고거래 사기 등에 연루된 부정송금이 3067건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2081건(금융사기 52건, 중고사기 2029건)으로, 2022년 1047건(금융사기 31건, 중고사기 1016건) 대비 약 2배에 달했다. 피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 14억9400만원으로 2022년(7억8500만원)에 비해 2배 가량 많았다. 토스뱅크는 최근 900만 고객을 돌파했다. 늘어난 거래 고객 수와 이용빈도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금융사기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 국내 은행 가운데 최초로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정책을 도입했다. 금융사기 범죄는 서민들의 일상 속에 침투해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등 중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토스뱅크는 고객, 서민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해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지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은행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과 고객과의 상생은 피해 회복을 돕는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은행 최초로 도입한 안심보상제가 2년여 간 약 23억원의 금융사기 피해 고객들의 회복을 돕는 데 기여했다"며 "토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에서 타행으로 송금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거나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유니크, 10년간 말로만 자사주 매입...주주 희망고문도 '유니크'

코스닥 상장사 유니크가 자사주 매입 공시를 통해 주주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다. 자사주 매입을 위한 신탁 계약을 10년째 연장하고 있으나 실제 주식을 매입하지 않은 상태. 오히려 그간 보유 중인 자사주를 매각하는 등 반대의 행보를 나타내면서 주주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유니크는 지난 3월 8일 정정공시를 통해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연장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30억원이다.

문제는 실제 자사주 매입은 없이 계약만 연장중이라는 점이다. 첫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공시일은 2013년 3월 18일이다. 무려 11년 전이다. 당해 3월 18일부터 2014년 3월 18일까지 자사주를 신탁을 통해 주식을 매입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계약 목적은 주가안정화 및 주주 가치 제고다. 계약을 체결한 기관은 한국산업은행이다. 당시 회사는 자사주 108만9087주(5.65%)를 보유중이었다.

자사주, 2013년 첫해만 16억 매입 2014년 이후 매입 한 차례도 없어 금투업계 “주식매수 여지만 남겨” 신탁계약 전액 취득 안해도 제재無し 신탁연장 제한·연장공시 강화 필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유니크는 2013년 신탁을 통해 62만3078주를 총 16억9447만원을 들여 사들인 게 끝이다. 오히려 같은해 50만주와 12만3078주를 신탁으로 처분하면서 현금화 한 금액은 43억7500만원, 7억6172만원 등 총 51억3672만원에 달한다. 자사주 신탁을 통해 매입한 주식을 되팔아 두 배가 넘는 장사를 한 거다.

하지만 1년이 지난 2014년 1차 자사주 매입 신탁계약 연장(2014년 3월 18일~2015년 3월 18일)을 알렸고, 2015년에는 2차 연장(2015년 3월 18일~2016년 3월

신고일	종목명	자사주 취득/처분	기간	신고수량	취득수량	처분금액 누계
2020-05-07	유니크	직접/처분	2020-05-08~2020-05-08	183,702	183,702	1,136,931,678
2019-01-17	유니크	직접/처분	2019-01-18~2019-01-18	350,000	350,000	4,256,000,000
2017-11-22	유니크	직접/처분	2017-11-23~2017-11-23	500,000	500,000	3,439,000,000
2013-03-18	유니크	신탁/처분	2013-03-18~2013-03-18	-	123,078	761,729,742
2013-03-18	유니크	신탁/처분	2013-03-18~2013-03-18	-	500,000	4,375,000,000
2013-03-18	유니크	신탁/취득	2013-03-18~2014-03-18	-	623,078	1,694,474,375

그래픽=김베키 기자 seuk22@ekn.kr

18일), 2016년에는 3차 연장을 이어가는 등 올해까지 매년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 왔다. 문제는 첫해를 제외하고 자사주를 단 한주도 매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회사는

2013년과 2014년 자기주식 171만2165주를 보유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2015년과 2016년에는 일부 줄어든 165만6780주, 2017년에는 115만6780주로 줄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30만6780주까지

감소했다. 그리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보유 중인 자사주는 없다고 적었다.

이는 자사주를 시간의 대량매매를 통해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이다. 유니크는 지난 2017년 11월 22일 자사주 50만주를 34억원에 시간의 매매로 매도했다. 또 2019년 1월 17일에는 35만주를 43억원에 시간의 거래로 팔았고, 2020년 5월 7일에도 18만3702주를 11억원에 장외에서 팔았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신탁계약은 연장 가능하며 공시한 금액을 취득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유니크의 사례처럼 주식을 매입하지 않고 계약 연장공시를 한다는 것은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적이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상태에서 실제 매입이 나가지 않는다는 점은 주주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어 문제”라면서 “주가가 현재 낮은 상태에서 주가부양을 위한 실질적인 액션이 필요한 시점”이

라고 말했다.

이같은 행동에 네이버 증권토론포방에는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글에 ‘이정도면 공시 위반이라고 봐야한다’거나 ‘연장 계약(을) 정말 여러번 했다. 뭘 짓거리를 하는 거냐’, ‘자사주 매수할 의향이 없는데 계속 공시만 내는 중’이라는 댓글이 등 록된 상태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발간한 ‘자기주식 간접취득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간접취득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탁계약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이지만 투자자 관점에서는 실제 취득 시점이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기업과 투자자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신탁 연장을 제한하고 연장 공시를 강화하며 신탁 내 처분을 직접처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성호 기자 paperkiller@ekn.kr

에스디생명공학, 거래 재개 꿈꾸다 또 ‘상폐’ 위기

최대주주 변경 이후 거래 재개 가능성을 보여준 에스디생명공학이 다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다. 최근 수년간 누적된 실적 악화로 영업이익이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못미친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인수한 대원제약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한국거래소는 에스디생명공학의 상장폐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

에스디생명공학은 지난 2022년 감사 보고서에서 감사법위해관과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아 거래가 정지 중인 종목이다.

단, 의견거절 문제는 이번엔 해소했다. 에스디생명공학은 재감사를 통해 지난 1월 31일 해당 감사보고서의 의견을

감사 의견거절 해소 ‘적정’ 받았지만 임원 소유 회사 지원 손상차손 발생 대원제약, 추가 지원 여부에 촉각

‘적정’으로 수정한 공시를 다시 냈다. 문제는 감사보고서는 적정이지만 기록된 손실의 규모다.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 규모가 52억 2569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다.

손상차손은 위드지엘에서 29억원, 에스디큐어 7억9978만원, 에니코스 7억원, 신성디엘 6억3511만원, Camorak s.r.l. 1억2038만원, Laboratoires d'Arm or 4541만원 등의 순으로 쌓였다.

위드지엘은 에스디생명공학에서 중국 제조 부문 부사장을 지낸 이한영 씨가 소

유 중인 법인으로 확인되며, 에스디큐어와 에니코스는 에스디생명공학의 계열사다.

대규모 손상차손으로 결국 에스디생명공학은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서 자기자본의 50%를 넘는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면서 관리종목에 추가 지정됐다.

이에 에스디생명공학은 향후 상장 유지를 위해 최대주주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에스디생명공학은 지난해 말 대원제약을 새로운 최대주주로 맞이했다. 대원 제약은 총 650억원을 들여 에스디생명공학의 지분 72.90%를 확보했다.

투입된 자금 덕에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감사보고서 ‘적정’을 얻어냈지만, 손상차손에 따른 손실들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과정에서 에스디생명공학이 제출할 경영개선계획서에 대원제약의 지원 약속이 담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대원제약 입장에서 에스디생명공학의 상황이 그리 절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에스디생명공학의 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766억원에 달한다. 대원제약 입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화장품 사업을 진출할 자산을 얻어낸 셈이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원제약은 이미 큰 규모의 지출을 진행해 추가 자금 지출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하지만 에스디생명공학의 인수에 자산운용사도 컨소시엄에 참가했다는 점에서 상장 유지를 위한 추가 지원을 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강현정 기자 khc@ekn.kr

OCI, 한미와 공동경영...지배력 얻고 한미에 경영권 남겼다

OCI와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자본 교환 과정에서 ‘공동경영’을 강조했다. 한국 M&A에서 전례없던 방식이다. 지배력의 변경과 무관하게 주주 간 계약을 통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독특한 구조다.

19일 투자는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영권을 갖고 있다는 건 이사회 구성원을 바꿔야만 경영권을 가져가는 건데 계약 구조상 불가능”이라면서 “주주간 계약을 통해 각 그룹의 전문성 있는 사업부문의 경영을 책임지는 구조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법인 김앤장과 세종이 주요 내용을 공증했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을 요약한다면 OCI는 주주 간 계약으로 인해 한미사이언스의 지배력을 확보한 것이다. 한미사이언스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없기에 ‘공동경영’ 구조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주주 간 계약 활용해 ‘지배력=경영권’ 등식 깨트려 국내선 낚설지만 해외에서는 사용되는 경영 기법

경영권을 갖는다면 재무, 인사, 투자, 배당 등과 같은 회사의 의사결정권은 배타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지배력을 확보하고, 이사회를 장악한다. 지주사로 외연을 확대하더라도 모자 관계를 통해 계열사의 이사회에 모회사 임원을 파견하면 된다. 법안력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최대주주라고 반드시 경영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주주총회란 절차가 필요하다. 이사를 추천하고, 선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OCI와 한미사이언스의 공동경영은 ‘이사 추천’ 과정에 변화를 줬다. 주주 간 계약을 통해 OCI그룹 관계자가 한미사이언스의 이

사진을 추천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이 경우,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은 기존의 성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유사한 사례로는 LVMH가 거론된다. 명품 패션 그룹인 루이비통과 하이엔드 주류 그룹인 모엠헤니시가 합병할 때 역시 양 측의 사업 관련 고유 권한은 침범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 결과, 이종 산업의 결합으로 LVMH는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한 회사 내에서 독립 경영이 보장되는 문화는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DX(Device Experience) 부문 △DS(Device Solution) 부문 등 사업 부문 별로 독립 경영을 한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인 GM 역시 자

동자 제조 부문장이 자동차 대륙 부문을 겸임하거나 각자의 사업 부문을 간섭하지 않는다고 전해진다.

다만, 경제 활동은 한정된 자원을 분배해야 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곳곳이 풍부한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곳곳이 부족하거나 자금을 집중해야 할 때 등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렇기에 모회사 OCI홀딩스는 공동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과 임 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이 각자 대표를 맡는다. 그룹 내 최고 결정 기구에 참여하면서 그룹 전반을 일정 부문 함께 경영하는 것이다. 또한 각자 대표관 방식으로 각자의 고유 업무 영역을 보호한다.

그는 “주주 간 계약으로 대부분 해결했다”면서 “미세한 부분은 PMI 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라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국내 유통주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조치가 소멸하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와 정책 효과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자심리가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최근 한 달 새 13.41% 하락했다. 롯데쇼핑은 2월7일 종가 9만1100원까지 급등했으나, 현재 7만3000원대로 내려앉았다.

다른 유통종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신세계랑 현대백화점도 한 달새 각각 11.82%, 12.54% 급락했다. 이마트 주가도 1개월 새 8.94% 하락했다. 지난달 5일 8만7000원대까지 치솟았지만, 현재 6만9000원대까지 추락했다.

국내 유통종목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 효과가 없었다. 이에 지난 1월 중순 이후 종목별로 20~30% 급등하기도 했다. 저(低) 주가

“저PBR 유통주 주주환원 없네”...투심 등 돌려

롯데쇼핑, 한달새 13.41% 하락 신세계·현대백·이마트도 급락 수익성 한계 해소전 반등 난항

순자산비율(PBR) 종목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은 것이다.

실제 당시 유통종목 대다수의 PBR가 0.2~0.4배 수준이었다. 특히 이마트와 롯데쇼핑의 경우 12개월 선행 PBR이 각각 0.17배, 0.22배였다.

저PBR주인 유통주는 기업 가치 상승에 한계가 부딪혔던 평가다. 국내 유통업계 경쟁이 심화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마트는 지난해 469억원 적자를 냈다. 이는 창사 이래 처음

이다. 본업 매출액도 2.1% 하락했다. 최근 3년간 매출 성장률도 10% 이상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0.48% 떨어졌다.

롯데쇼핑도 5년째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2019년(17조6220억원), 2020년(16조1844억원), 2021년(15조5736억원), 2022년(15조4760억원), 2023년(14조5559억원)까지 매년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증권가에서도 실적 개선이 우선돼야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PBR 수혜를 받으려면 자기 자본이익률(ROE) 개선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유통주 중 PBR 1배 미만 종목 중 ROE가

10%를 넘는 경우는 없고, 현대백화점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100%를 상회한다”며 “본업에 대한 실적도 하락하고 있고 재무건전성도 취약한 만큼 우려 상생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유통기업들이 내놓은 주주환원책도 투심을 자극하기 쉽지 않다. 현대백화점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최소 배당액을 기존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올해 총 25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단행할 계획이다.

이마트와 신세계는 각각 최저배당을 2000원, 3500원으로 설정했다. 이마트는 지난해 2월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의 20%를 주주 환원 재원으로 쓴다는 목표다. 신세계도 지난해 11월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의 10~15%를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외인·기관 팔자에 코스피 2650선 탈락 코스피가 19일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세에 1% 넘게 하락하며 2650선까지 내려앉았다. 이날 코스피 증가는 전장보다 29.67포인트(1.10%) 내린 2656.17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12.27포인트(0.46%) 내린 2673.57로 출발한 이후 낙폭이 커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7017억원, 2409억원을 순매도한 가운데 개인이 9088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6.1원 오른 1339.8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코인원 ‘허위·과장광고’ 투자자들 피해 우려

‘비트코인 20억원 간다’ 문구 논란 투자자 판단 영향 끼쳐 문제 소지 “금융당국 규제 마련 등 개선해야”

인원이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이벤트의 홍보 문구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가상자산 시세에 관한 다소 확정적 어조의 광고 문구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광고 규제 마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코인원은 신규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 기간 내 코인원 플랫폼에서 처음으로 거래를 실시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 더 좋아하는 코인에 투표할 경우 1만원~4만원 상당의 무작위 가상자산을 에어드롭하는 이벤트다.

그런데 해당 이벤트 광고에 삽입된 홍보 문구가 일부 이용자들에게 화제가 됐다. 스마트폰에 코인원 앱을 설치할 경우 수신되는 푸시 알림에서 ‘비트코인 20억원 간다. 그때 살걸 하지 말라 했다?’라는 문구가 가장 상단에 굵은 글씨로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비트코인은 미국 바이낸스 기준 한화로 8700만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이 이벤트 홍보 문구가 향후 비트코인의 시세가 20억원까지 도달하리라는 확정적인 어조로 표현돼 있어 투자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반적인 투자 전문가 유튜브가 플랫폼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자유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코인 매매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아직 현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거래소 광고에 대해 제재를 가할 별다른 법적 근

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사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 표현을 금지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투자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비트코인 시세가 20억원까지 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만큼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 규정을 적용하기도 어렵다.

이에 지금부터라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광고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약체(DAXA) 자체 규정에도 거래소의 광고 표시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영 법무법인 로지스 대표 변호사는 “거래소가 투자자 유입을 위한 영리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데 다소 과장하는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소가 단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일반적인 의견 표현과 다르게 봐야 하며, 어느 정도는 규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관련 법규는 없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의 광고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선할 점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코인원 측은 “해당 문구는 아르키메데스먼트 케이스우드의 비트코인 전망을 인용한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이모지를 통해 의견을 표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표현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역대 최대 매출’ 대한항공...영업이익 37% ↓ 이유는?

지난해 매출 16조1118억원
영업이익 1조7900억원...전년대비 36% ↓
여객사업본부 9조 매출 ‘호자노릇’
화물·항공·호텔 사업부 수익성 저조



대한항공 사기(社旗)가 휘날리는 모습.

대한항공이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거뒀지만 여객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대폭 감소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지난해 매출은 16조111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969년 창립 이래 최대 규모로, 전년보다는 14.30% 증가한 수치다. 회사 매출의 절대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대폭 감소했다.

이처럼 매출이 신장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억눌려 왔던 소비자들의 여행 심리가 회복되며 관광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데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수익성이 높은 주요 관광 노선을 중심으로 북항과 증편을 추진해 여객 노선 수익이 2022년 대비 116%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여객사업본부 매출은 국제선 8조5352억원, 국내선은 4787억원으로 총 9조139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회사 전체 영업이익

은 1조7900억원으로 2022년보다 1조677억원(36.76%) 줄었다. 이는 여객사업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의 수익성이 외부 요인에 잠식당해왔다.

화물사업본부의 지난해 매출은 4조297억원이다.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위축과 여객기 운항 회복에 따른 벨리 카고 공급량 증가로 항공 화물 수요가 감소하고 운임이 하락한 탓에 기인한다. 2022년 kg당 5.08달러(한화 6503원)이었던 국제선 항공 화물 운임 단가는 지난해 3.17달러(한화 4135원)로 급전직하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해 글로벌 항공화물 수송은 2022년 대비 2.2% 감소했다.

이 외에도 여객기 운항 회복과 사업량

증가에 따라 연료·유류비는 전년 대비 16.10% 늘어 4조8023억원, 인건비는 27% 증가한 4조802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수요 폭증에 따라 여객기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좌석 공극을 적시에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대외 경제 불안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화물 전용 여객기를 감편했다”면서 “최근 전사상거래 물량의 증가세와 반도체 산업의 경기 회복을 고려할 때, 화물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올해에는 이에 대비해 영업 전략을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부연했다.

방위사업과 연구·개발(R&D) 등을 담당하는 항공우주사업본부의 매출과 영업손실은 각각 5407억원, 114억원이다. 매출은 보잉·에어버스 등 글로벌 항공기 제작사의 생산량 회복에 따라 전년 대비 10.1% 증가했으나, 인건비 증가와 해군 P-3C 해상 초계기 지체상금 면제 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일시적인 비용이 반영돼 적자폭이 1590.29% 확대됐다.

호텔사업부본부는 매출액이 1709억원이지만 영업이익 348억원을 기록했다. 대한항공이 자본 100%를 보유한 미국 자회사 한진인터내셔널(HIC)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운영 중인 호텔인 윌셔그랜드센터가 예상 대비 저조한 호텔 수요와 인건비 증가로 적자를 봤기 때문이다.

HIC는 2016년 당기순이익 33억원으로 전년 대비 △2017년 770억원 △2018년 1073억원 △2019년 1072억원 △2020년 1208억원 △2021년 1354억원 △2022년 1423억원 △2023년 1042억원 등 7년래 매년 1000억원대의 적자를 내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HIC를 매물로 내놔던 적이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겹치고 나서 투숙객 수요도 발생하고 있고, 윌셔 그랜드 센터 호텔의 입지적 조건이 좋은 만큼 부동산 경기 흐름을 타면 가치 상승이 오를 것을 기대해 매각 의향을 접었다”고 설명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현대차그룹 전기차, 글로벌 車 시상식 석권 6개월간 13개국 48개 부문서 수상...EV9·아이오닉6 등 호평 일색

현대자동차그룹 전기차들이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지 영향력 있는 자동차 기관과 매체가 주관하는 시상식을 석권하며 수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기아 EV9

현대자동차그룹은 최근 6개월간 진행된 전 세계 자동차 시상식에서 전기차 모델이 13개국 48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차그룹 E-GMP가 적용된 전용 전기차 모델을 중심으로 활약을 펼치고 있다. E-GMP는 현대차그룹이 3년 전 선보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다. 800V 충전 시스템을 갖춰 초고속 급속충전기 이용 시 18분 이내 10%에서 80% 충전이 가능해 5분 충전으로 100km를 주행할 수 있다.

미국 자동차 전문 웹사이트 에드먼즈(edmunds)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기차 충전 시간당 주행거리 평가 순위에서 1~3위가 모두 E-GMP 기반 전기차 모델이었으며 10위 안에는 5개 모델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에너지부환경보호청(EPA)이 공동 운영하는 연료절약 정보 사이트 ‘퓨얼이코노미(Fueleconomy.gov)’에서는 아이오닉6 롱레인지 후륜 모델(18인치 휠, 복합연비 140MPGe)이 ‘최고 연료소비효율 차’에 올랐다. 10위 안에 E-GMP를 기반으로 한 차량이 7개나 포함돼 경쟁력을 입증했다.

기아 EV9은 2024 북미 올해의 SUV, 2024 독일 올해의 차 럭셔리 부문, 2024 영국 올해의 차, 2024 덴마크 올해의 차 올해의 혁신상, 2023 탐기어 올해의 패밀리카 등 총 17개 부문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현대차 아이오닉6는 2024 독일 올해의 차 뉴에너지 부문, 2024 아일랜드 올해의 차, 2024 스코틀랜드 올해의 차, 2024 영국 올해의 차 페밀리카 부문 등 총 7개 부문을 수상하며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아이오닉5는 2024 싱가포르 올해의 차, 2024 인도 올해의 차 그린카 부문, 미국 카즈닷컴 2024 최고의 전기차 등 총 8개 부문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제네시스 GV60는 2024 중국 올해의 SUV, 2023 왓 카 올해의 전기차 최고의 대형 전기 SUV 등 총 3개 부문에 뽑히며 호평을 받았다.

전용 전기차 고성능 라인업인 아이오닉5 N(2023 탐기어 올해의 차)과 EV6 GT(2024 스코틀랜드 올해의 차 고성능차 부문) 역시 수상 소식을 전하며 주목을 끌었다. 아이오닉5 N은 한국자동차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각각 뽑은 ‘2024 올해의 차’에 모두 선정되기도 했다.

또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GV70 전동화 모델 등 내연 기관 기반 전동화 모델이 다수의 시상식에서 수상을 이어가며 뛰어난 전동화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기아·제네시스 전기차의 권위 있는 다수의 시상식에서 연일 수상 소식을 전하고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욱 경쟁력 있는 전동화 모델로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현우 기자 yes@ekn.kr

삼성전기, 전기차 고압 MLCC 개발...전장용 제품 라인업 확대

(적층 세라믹 캐패시터)

삼성전기가 전기 자동차에 적용 가능한 고압 MLCC(Multi-Layer Ceramic Capacitor)를 개발하고, 하이엔드급 전장용 제품 라인업 확대에 전장 시장 공략에 나선다.

삼성전기는 630V 이상 사용 환경에서도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장용 MLCC 5종을 개발해 글로벌 자동차 부품 거래선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전자 제품의 회로에 전류가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흐르도록 제어하는 △부품 △스마트폰 △PC △IT 기기 △가전 제품 △자동차 △5G △사물 인터넷(IoT) 관련 제품에 두루 사용된다. 특히 자동차에는 동력 전달·안전·주행·인포테인먼트 등에 최소 3000~1만개의 MLCC가 탑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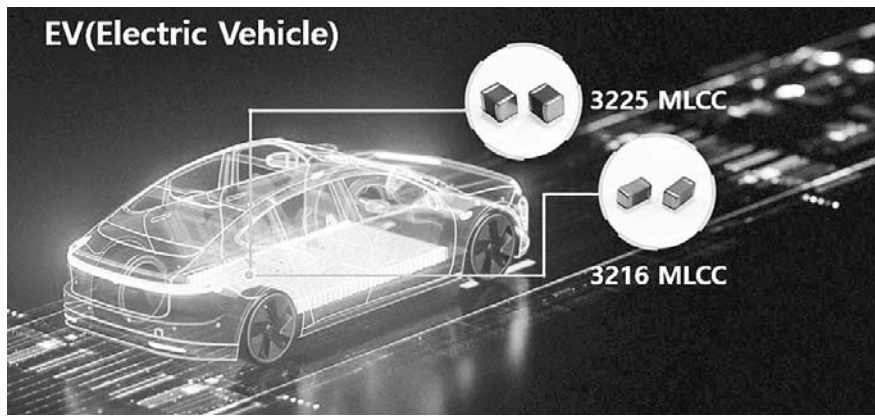
삼성전기가 이번에 개발한 전장용 MLCC는 기존 IT용 MLCC의 사용전압 6.3V 대비 100배 이상의 사용 환경인 1000V·630V를 보증하는 고난도·고부가 제품이다. 높은 전압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지면서 배터리 시스템 내부의 고주파 노이즈를 제거해 배터리 안

630V 이상 환경서 안정적 전원 공급
고주파 노이즈 제거...배터리 안정성 ↑
“설비 내재화·생산 능력 강화할 것”

정성을 높여준다는 뜻이다.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은 최대 400V의 전압을 사용한다. 이러한 환경에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안전 마진 2배이상의 630V, 1000V의 고압 MLCC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삼성전기가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총 5종이다. 1000V를 보증하는 3225(3.2mmX2.5mm) 크기에 15nF(나노페럿·용량)과 22nF, 3216 크기에 1nF 용량 등 3종과 630V를 보증하는 3225 크기 33nF, 3216 크기 10nF용량 등 2종이다.

전기차 온보드 충전기는 외부 전기 충전기에서 전력을 받아 차량 내 배터리를 충전하는 장치다. 차량의 주행 성능과 한번에 충전할 수 있는 전기량 등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 중 하나다. 기존 온보드 충전기에는 신호 노이즈 제거를 위해 필름 콘덴서를 사용했지만



전기 자동차 온보드 충전기용 MLCC.

최근 충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 전압과 주파수가 높아지는 추세다. 전기차에서는 고주파 환경에서 노이즈 제거와 고신뢰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MLCC의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원자재를 독자 개발하고 내부전극의 구조를 변경해 높은 전압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MLCC를 개발했다. 전기차 시장 확대와 고속 충전·충전 거리를 늘리기 위한 배터리 시스템의 고압·고성능화 추세로 고압 MLCC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다. 고압 MLCC 시장 규모는 올해 40억달러에서 2029년까지 약 110억달러로 연 평균 약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철 삼성전기 컴포넌트사업부장(부사장)은 “이번 전장용 고압 제품 개발을 통해 당사의 전장용 MLCC 기술력을 입증했다”며, “MLCC의 핵심 원자재를 자체 개발·제조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설비 내재화와 생산 능력 강화로 전장용 제품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퇴직금에 경영성과급 포함” 대법원 판결 앞뒤...기업 대비해야

대항상의, 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임금리스크 최소화 선제적 대응 필요”

퇴직금 산정 시 경영성과급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우리 기업들의 사전 대비와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4년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기업의 임금관리·노사관계·인력관리에서 유의해야 할 판례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웨비나에서 올해 대법원 선고예 정인 노동사건 중 경영성과급의 평균 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제외기준인

재직자 요건의 유효성 여부 △원청의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 등을 3대 판결 결과 꼽으며 임금과 노사관계 사법리스크에 대해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파트너변호사는 첫번째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만일 대법원에서 경영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그간 퇴직금, 휴업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제2의 통상임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미 대법원이 공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만큼 추후 대법원이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릴 수 있어 주의 깊게 지켜보며 임금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노동사건으로는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 등 급여 항목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포함여부에 대한 다툼을 꼽았다. 김변호사는 “해당 판결은 3대 노동판결 중에 가장 빨리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이 재직조건부 급여의 통상임금 입장을 변경할 경우 기존 제외한다는 판결입장을 신뢰해 임금체계를 구축해 놓은 기업에게 엄청난 폭탄으로 작용해 갈등과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재직조건부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상황에 대비해 임금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편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세번째 주목해야 할 노동사건은 노란

분투법과 관련된 원청의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사안이다. 김 변호사는 “노란분투법의 불씨가 아직 스그라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실질적으로 노란분투법이 입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노란분투법이 입법된 것과 동일하게 원청은 하청노조와 일일이 교섭해야 하고, 하청노조는 원청 사업장에서 파업 등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방식에 대해서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력업체와의 원하청관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미리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현우 기자

LG화학, 환경부와 중소·중견기업 ESG 경영 MOU

LCA 수행 지원·탄소저감 아이템 발굴

LG화학이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화학업종 중소·중견기업의 E

SG 역량 향상을 돕는다.

LG화학은 국내 협력사의 탄소 경쟁력 강화 및 관련 규제 대응 역량을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전과정평가(LCA) 수행 지원 △공정 진단 및 탄소저감 아이템 발굴 △공정 개선 활동 지원 등을 진행한다.

LG화학은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이 추진 중인 국가 전과정목록(LCI)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 등 탄소배출

량 관련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참여 중이다.

LG화학은 협력회사 LCA 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교육을 제공하고 동반 성장기금을 활용해 공급망 중소·중견 협력사의 시설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나광호 기자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생산 라인 풀가동

출시 12일 만 누적 3천대 돌파

삼성전자는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 광주 사업장 제품 생산 라인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비스포크 AI 콤보 판매는 출시 3일 만에 1000대, 12일 만에 누적 3000대를 돌파했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세탁 후 건조를 위해 세탁물을 옮길 필요 없이 세탁과 건조가 한 번에 가능한 게 특징이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각각 설치할 때보다 설치 공간을 약 40%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체형 제품이면서도 고효율 인버터 히트펌프 기반으로 단독 건조기 수준의 건조 성능을 구현했다고 업체 측은 설



삼성전자는 자사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판매량 호조에 힘입어 광주 사업장 생산 라인을 풀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규빈 기자

재활용 소재 입혔다...삼성전자, 배터리팩 2종 출시

인증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 30% 적용...최대 3대 기기 동시 충전

삼성전자는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강력한 성능의 배터리팩 2종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배터리팩은 'PD 배터리팩 2만mAh'와 'PD 무선 충전 배터리팩 1만mAh'다. 외관에 UL(Underwriters Laboratories) 인증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 30%를 적용한 게 특징이다.

신규 배터리팩 2종은 모두 USB PD 3.0 표준 규격의 USB-C 타입 포트를 탑재했다. 'PD 배터리팩 2만mAh'는 최대 45W의 유선 충전을 지원한다. USB-C 타입 포트 3개를 탑재해 최대 3대의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

'PD 무선 충전 배터리팩 1만mAh'은 무선과 유선 충전이 모두 가능하다. 유선은 최대 25W까지 할 수 있다. USB-C 타입 포트는 2개를 탑재했다.

가격은 'PD 배터리팩 2만mAh'이 6만 6000원, 'PD 무선 충전 배터리팩 1만mAh'이 5만5000원이다. 색상은 두 모델 모두 베이지 한가지로 출시된다.

삼성전자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19



삼성전자 신형 배터리팩 2종.

일부터 31일까지 삼성닷컴에서 배터리팩 신제품 2종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신규 배터리팩 2종은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 등 다양한 모바일·IT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는 고객에게 더욱 빠르고 편리한 충전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신제품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배터리 걱정없이 자유로운 모바일 라이프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KT, 디바이스 디자인 혁신...세계무대 수상 '꽤거'

레드닷·iF 이어 디·유리서 수상

KT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iF 디자인 어워드에 이어 일본 굿 디자인과 유러피언 프로덕트 디자인 어워드 등에서 수상하는 꽤거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KT는 지난 1년 간 '바이브먼트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지니TV 울인원 사운드바와 KT 와이파이(WiFi) 6D, 하이오더2 총 3가지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였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외형적인 스타일링을 넘어 고객과 고객들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깊은 리서치를 바탕으로, 숨겨진 고객 니즈를 발굴해 디바이스 디자인을 고객 중심으로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디자인 된 첫번째 제품인 지니TV 울인원 사운드바는 TV 주변에 어지럽게 놓여있던 무선공유기와 셋톱박스를 하나로 통합한 제품이다. 산업디자인의 거장 스테파노 지오반노니와 협업을 통해 제작했다. '소리의 모양'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제품은 사운드바 형상으로 제작돼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능과 우수한 사운드 품질을 시각화한 유려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프로젝트의 두번째 결과물인 'KT WiFi 6D'는 유무선 공유기로, 기존의 통신사 유무선 공유기의 기계적인 형태와 거추장스러운 외관을 개선했다. 안테나를 내장해 최적의 무선 신호를 송출함과 동시에 깔끔하고 세련된 외관으로 어떤 공



하이오더2.

간에도 어울리게 디자인한 점이 특징이다. 또 휴대폰 케이스를 바꿔 끼우는 것처럼 전용 스킨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자가 자신의 취향과 공간 스타일에 따라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제작했다. 기본 제공되는 스노우화이트와 월넛 컬러 스킨 외에도 다양한 아티스트, 디자이너,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스킨을 선보일 예정이다.

KT 식당 주문용 테이블릿인 하이오더2는 기존 기기의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한 세번째 사례다. 전선 외부 노출과 청소·관리의 어려움을 디자인 개선으로 해결하고 결제시스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설치 편의성도 담았다. 또 테이블이 강조된 일체형 디자인으로 하이오더2를 사용하는 손님들에게 더욱 깔끔하고 편안한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

김병국 KT 디바이스본부장 상무는 "앞으로도 기술 중심 디바이스 디자인을 넘어 사용자 중심 디바이스 디자인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원작IP·싱글게임 차별화...‘나혼렘’ 성공기도 달릴까

넷마블 '나혼렘' 쇼케이스 개최
원작따라 주인공 캐릭터로 진행
싱글플레이에 정액제·패스 BM

넷마블이 상반기 최대 기대작으로 꼽히는 '나혼렘 레벨업: 어라이즈(나혼렘)'를 신평탄으로 올해 본격적인 실적 반등에 나선다. 국내 모바일게임 매출 최상위권을 점령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 아닌 싱글플레이 액션 역할수행게임(RPG)이라는 장르적 우려도 제기됐지만 넷마블은 충실한 원작 구현과 차별화된 게임 시스템을 무기로 이번 신작의 성공을 자신했다.

19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위에서 미디어쇼케이스를 열고 나혼렘의 세부 게임 시스템과 운영전략을 공개했다. 나혼렘은 이날 사전등록을 시작해 태국, 캐나다의 공개베타테스트(OBT)를 거쳐 5월 초 글로벌시장에 정식 출시된다.

이날 권영식 넷마블·넷마블네오 대표는 "게임 하나가 성공하면 한 분기 정도 만에 흑자전환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올해 넷마블은 기대작 여럿을 준비하고 있다. 나혼렘이 5월에 출시하면 매출이 바로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반기 안으로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넷마블의 연간 영업손실은 여전히 600억원을 웃돌지만 올해 나혼렘을 비롯



조신화 넷마블 사업그룹장, 권영식 넷마블·넷마블네오 대표, 김준성 넷마블네오 개발총괄본부장, 진성진 넷마블네오 개발PD(왼쪽부터)가 19일 서울 구로구 지타위에서 열린 미디어쇼케이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 아스달 연대기, 일곱개의 대죄 오리진 등 PC·콘솔까지 다양한 신작 라인업으로 반등 기대감을 높인다. 특히 나혼렘은 그중에서도 가장 흥행 가능성이 높은 작품으로 기대를 모은다. 원작 지식재산권(IP)인 동명의 카카오페이지 웹툰이 글로벌 누적 조회수 143억회를 기록하며 세운 히트작인 데다 최근 넷마블이 투자에 참여해 제작한 나혼렘 애니메이션도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최상위권에 랭크되는 등 화제성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나혼렘은 리니지2레볼루션, 제2의 나리 등 원작 IP를 재해석해 게임으로

개발한 경험을 보유한 넷마블네오가 개발을 맡아 주목받았다. 개발진은 나혼렘 개발에서 원작 감성의 충실한 구현에 가장 중점을 뒀다고 재차 강조했다. 나혼렘의 개발 방향을 MMORPG가 아닌 싱글플레이 액션 RPG로 결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권 대표는 "원작 IP가 있는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P를 잘 살리는 것"이라며 "물론 매출을 쉽게 낼 수 있는 다른 장르를 고민 안 한 건 아니지만 결국 나혼렘 IP에는 액션RPG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게임의 메인스토리는 원작처럼 이용자 주인공 성진우로 분해 게이트를 공략하

는 싱글플레이 모드로 진행된다. 추공 작가의 감수 아래 게임만의 오리진 스토리도 다수 적용됐다. 수많은 동료 헌터들로 나만의 공격대도 구성할 수 있으며 레드게이트 등 다양한 던전플레이도 가능하다.

원작에서 성진우가 감시과 소속 강태식을 처치하고 '은신' 룬을 획득했던 것처럼 이용자는 룬의 종류와 조합에 따라 달라지는 모션과 고요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무기에 따라, 전투 중 타이밍이나 콤보 연계에 따라서는 변화하는 전투 시스템을 통해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다. 일단 론칭 버전에는 20여명의 헌터가 등장하며, 스토리는 악마성 하층부까지 공개된다.

싱글플레이 게임인 만큼 주력 비즈니스 모델(BM)은 정액제와 패스 위주로 구성됐으며 일부 확률형 아이템도 존재한다. 론칭 시점에는 모바일과 PC 버전을 지원한다. 오픈 시점에 PC는 구글플레이 게임즈(GPG)와 맥 운영체제(OS)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연내 스팀 출시도 이어 추후 콘솔까지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권 대표는 "같은 PC라도 스팀 플랫폼의 성향은 다소 다르다. 스팀 대응에 성공하면 그 다음 단계가 콘솔이다. 이르면 내년쯤 콘솔 확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원작 IP는 디앤씨미디어가 보유하고 있으며 넷마블은 나혼렘의 애니메이션 제작에 투자한 상황이다. 이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게임 1종을 더 계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소진 기자 sojin@ekn.kr

‘지역 채널’ 강점...케이블TV, 선거 앞두고 콘텐츠 제작 본격화

케이블TV사들이 다음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콘텐츠 제작과 편성에 들어갔다. 케이블TV 지역채널의 강점이 '지역성'인 만큼 선거철엔 특히 케이블TV 콘텐츠에 대한 주목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케이블TV사들은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꼼꼼하게 전달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케이블TV사들이 다음달 총선거를 앞두고 지역 밀착형 선거 콘텐츠 제작과 편성에 돌입했다. 특히 케이블TV사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선거 콘텐츠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슬유생)'을 공동 제작하는 등 협력의 범위를 넓혔다. 케이블TV가 자협회 회원사인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HCN, 딜라이브, CMB 등 복수중합유선방송사업자(MSO) 5개사와 개별 SO(금강방송, 남인천방송, 서경방송, C CS충북방송, JCN울산중앙방송, KCTV 광주방송,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등)

선거 콘텐츠 '슬유생' 등 특집 방송 편성
LG헬로비전, 총선 공약 점검 방송 진행

에서는 다양한 선거정보와 유권자 릴레이 인터뷰를 담은 코너를 매주 수요일 공동으로 제작, 송출한다.

케이블TV 지역방송은 지역민들의 크고 작은 관심사를 방송 콘텐츠로 제작해 방송한다. 지역 별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지역과 관련한 현안이나 정책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다. 이 때문에 케이블TV 업체에게 선거는 가장 큰 이벤트로 여겨진다.

HCN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케이블방송 최초로 단독 자체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여론조사는 HCN 권역에 해당하는 3개의 광역단체장(충북지사·충북교육감·경북교육감)과 5개의 기초단체장(동작구청장·청주시장·구미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해당 조사는 높은 적중률로도 화제



유튜브에 업로드 된 선거 관련 콘텐츠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썸네일.

를 모았다.

경남 서부권을 송출권역으로 지역채널을 운영하는 서경방송은 지난해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표 방송에서 '시정률 1위'를 기록하며 지역채널의 진가를 독특히 보여줬다. 당시 서

경방송은 스튜디오와 개표현장을 연결하는 5원생중계를 비롯해 실시간 득표 현황과 기자대담, 앵커 브리핑 등을 진행하는 등 '깜깜이 선거' 방지에 기여했다.

다음달 총선을 앞두고 가장 발 빠른 행보를 보인 곳은 LG헬로비전이다. 케이블TV사 중 가장 많은 수의 권역을 가진 1위 사업자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 254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46명을 뽑는데, LG헬로비전 방송 권역에서는 국회의원 73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또 시장 보궐 선거가 이뤄지는 경남 밀양도 LG헬로비전의 방송 권역이다.

LG헬로비전은 '선택 2024 지역을 가지 있게'를 슬로건으로 이번 총선 후보자와 공약을 점검하는 선거방송을 진행한다. '나는 후보자다', '선거레이더' 등 뉴스 코너를 운영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부터 하단 스크롤을 통해 후보자 명단을 송출하는 등 지역별 후보자 정보를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RAYCOOK

퍼터는 레이쿱이 좋습니다

숏퍼팅은 더 좋습니다

▶ S사·B사·T사 퍼터와 레이쿱퍼터의 공의 스킵드(미끌림) 거리 비교

※ 테스트 | 스포츠산업기술센터 (KGOS)

삼성물산 패션, 2년 연속 매출 2조원 기세 있다

SPA·신명품·온라인몰 ‘삼각편대’ 강화

최근 2년 실적 호조에도 올해 2조1천억 ‘보수적 접근’ 사업개편 계기 SPA 에잇세컨즈 반등... 해외진출 모색 신명품 매출 30% 견인, 온라인 SSF압도 비중 상승세



삼성물산 패션이 최근 2년 연속 매출 2조원대의 기세를 올레도 이어가기 위해 SPA(기획·생산·유통 일괄화) 브랜드·신명품·온라인플랫폼을 ‘삼각편대’로 내세워 사업을 강화한다.

이제는 내수 부진으로 정체가 빠진 국내 패션시장에서 그나마 성장세를 보이는 SPA 브랜드와 신명품·온라인플랫폼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지난해 매출액은 2조51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7.8% 증가한 1940억원을 달성하며 실적 안정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견조한 실적에도 삼성물산 패션은 여전히 고물가 영향을 받아 패션산업 전망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해 올해 매출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았다. 즉, 작년과 유사한 2조1000억원 수준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설정해 불황을 위한 사업 강화에 경영 방침을 짰다.

한때 적자에 시달렸던 삼성물산 패션 부문이 재기에 성공한 이유는 강도 높은 체질 개선 덕분이다. 지난 2015년(적자

89억원), 2016년(적자 425억원) 등 연달아 영업손실을 맞은 삼성물산 패션은 2015~2020년 기간에 매출이 1조원 중반대에 정체되는 시련기를 겪었다.

수익성 강화를 위해 고삐를 죄기 시작한 것은 2021년부터다. ‘엠비오’·‘라베노바’·‘발레스트라’ 등 사업성이 없는 브랜드를 정리하고, 이듬해 11월 모태사업이던 직물사업을 중단하는 초강수까지 폈다. 그 결과, 2021년 1조7669억원이던 매출이 이듬해 2조11억원으로 경증 뛰는 기업도 토했다.

혹독한 다이어트와 함께 실적 날개를 달아준 것은 SPA브랜드와 신명품,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사업 전략이다. 가장 큰 실적 반등을 보인 것은 바로 에잇세컨즈다.

2012년 출범 후 10년 간 적자를 이어가던 에잇세컨즈는 아픈 손가락으로 꼽혔으나, 2022년 손익분기점(BEP)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매출 3000억원을 달성하며 효자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매장 수 역시 2022년 말 58개에서 지난해 말 71개, 지난해 72개로 규모가 커지는 추세다.

에잇세컨즈가 내수 시장에서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는 만큼 꾸준한 유통망 확대와 경영 역량 제고로 안정적인 수익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들어선 '가나' 매장

내년 목표로 글로벌 시장 진출도 도모하고 있다. 아시아 시장으로 초점이 맞춰졌으나 구체적인 시기나 진출국 등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체 매출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신명품 사업 육성에도 공들인다. 자체 편집숍인 비아·10 프르모 포소를 인큐베이터로 독점 수입 브랜드 발굴과 함께, 주력 브랜드의 볼륨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 아미·매종키즈네·폼데가르송에 이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자·스·가(자크뤼스·스튜디오 니콜슨·가나) 3개 브랜드가 대표 사례다. 지난해 1~11월 누적 기준 이들 브랜드는 매출 신장률만 전년 대비 각각 170%, 90%, 50%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체질 개선 차원에서 온라인 사업 강화도 이어간다. 자체 패션몰에 그쳤던 SSF

샵을 종합 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입점을 늘리고 온라인 전용 브랜드도 출시한 데 더해 AI(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을 기점으로 전체 매출에서 SSF 비중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19%였던 SSF 매출 비중은 이듬해 20%, 지난해 21%까지 규모가 커졌다. 올해 역시 1%p 오른 22%까지 확대될 것으로 회사는 예상하고 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관계자는 “올해 의류 소비가 둔화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다만, SPA사업부터 프리미엄 브랜드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외형 성장과 수익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동국제약 '엑스파트 마데카크림 3종'

종근당건강 '아임비타'

뷰티·건기식 소비자 호평에... 동국제약·종근당, 헬스케어 ‘탄력’

뉴스·SNS 등 사이트 23만개 분석...호감도 1·2위 차지 동국제약 마데카크림, 종근당 아임비타 대표제품 인기

동국제약과 종근당의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에 소비자 반응이 높아지면서 두 제약사의 헬스케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9일 여론조사분석기관 데이터리서처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뉴스·커뮤니티·카페·유튜브·인스타그램·정부·공공기관 등 12개 채널 23만개를 대상으로 출시한 데 대해 AI(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을 접목한다는 계획이 있다.

2021년을 기점으로 전체 매출에서 SSF 비중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19%였던 SSF 매출 비중은 이듬해 20%, 지난해 21%까지 규모가 커졌다. 올해 역시 1%p 오른 22%까지 확대될 것으로 회사는 예상하고 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 관계자는 “올해 의류 소비가 둔화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다만, SPA사업부터 프리미엄 브랜드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외형 성장과 수익성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추산된다. 지난해 동국제약 전체 매출 화장품 등에 소비자 반응이 높아지면서 두 제약사의 헬스케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동국제약은 마데카크림을 대표제품으로 하는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 24’를 비롯해 지난해 선보인 건기식 브랜드 ‘마이핏’, 잇몸건강용품 브랜드 ‘덴트릭스’ 등을 앞세워 2025년 매출 1조원 돌파 및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종근당도 건기식 등 헬스케어 제품의 소비자 호평에 힘입어 이번 조사에서 순 호감도 51.75%로 동국제약에 이어 호감도 2위 제약사에 올랐다.

데이터리서처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자인사이드는 ‘(종근당 아임비타 홍보보도) 미스터트롯2 출신 가수 박지현이) 콘서트 온 팬들한테 한 번씩 뿌렸다. 광고효과 대박인 듯’이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소개했다.

아임비타는 종근당 건기식 계열사 종근당건강의 프리미엄 비타민 브랜드이다. 특히 ‘아임비타 멀티비타민 미분산’은 엑스·캡슐·정제 3중 복합제형의 편의성을 앞세워 지난 2022년 10월 출시 이후 1년간 누적 판매량 1000만병을 돌파, 유산균 브랜드 ‘락토피’와 함께 종근당의 효자 브랜드로 떠오르고 있다.

종근당은 이번 조사에서 긍정문과 부정문을 포함한 전체 포스팅 수(관심도)에서 총 15만5343건의 포스팅을 기록해 ‘관심도 1위’ 기업에 오르기도 했다.

이밖에 동이제약·GC녹십자·한미약품이 나란히 호감도 3~5위를, 유한양행·한미약품·대웅제약·휴온스가 각각 관심도 2~5위를 차지했다.

데이터리서처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지난해 제약업체의 절반 이상이 지난 2022년과 비교해 온라인 정보량이 감소했다”면서 “이번 호감도 조사가 (계약업체 호감도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하나투어, ‘자유여행객 잡기’ 수위 높인다

여행시장 70% 자유여행객 겨냥 호텔·항공 선택형 신상품 출시 현지투어+해외입장권 상품도 준비... 패키지·자유여행 경계 실종

지난해 10월 자유여행시장 공략을 선언한 하나투어가 고객이 원하는 항공과 호텔을 직접 선택해 결제할 수 있는 자유여행상품을 최근 새로 내놓았다.

모두투어·노랑풍선 등 패키지여행 경쟁사와 아울러 자유여행객들이 선택형 상품을 한 번 먼저 내놓은 상황에서 뒤늦게 가세했지만, 하나투어는 현지투어와 해외입장권 구매 결합 상품도 연내에 추가해 자유여행시장에서도 앞서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9일 하나투어에 따르면, 자유여행객들은 항공·호텔·현지투어 예약을 위해 여행사 또는 여행 플랫폼에서 비교 검색 뒤 예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에 하나투어가 선보인 ‘내맘대로’ 서비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과 호텔을 한 번에 쉽게 예약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이다. 의료 지원과 여행 편의

지원 등 현지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처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도 포함됐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해외법인과 협력 인력 등을 다수 보유한 만큼 호텔 등의 상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있고, 새로운 상품 개발도 신속하게 트렌드에 맞춰 대응할 수 있다”며 “개별 항공권만 아닌 패키지여행을 위해 선구매한 고객들도 함께 판매해 더 다양한 가격과 패턴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하나투어는 경쟁사 및 타 플랫폼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인 현지투어와 해외입장권 구매 결합 상품을 올해 내 신속하게 추가해 시장에서 앞서가겠다는 구상이다.

하나투어가 자유여행 시장을 공략하려는 것은 자유여행 시장 규모가 약 28억으로, 전체 여행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야놀자 등 여행플랫폼이 성장하며 패키지 시장을 노리는 기업 가치 유지를 위해 ‘맞팔’을 놓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여행 플랫폼은 접속량(트래픽)이 많아 항공 등 판매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자유여행은 시장이 워낙 큰 만큼 일정 지분을 확보하면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 진입장벽을 넘기 위해 종합 여행사들이 열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하나투어뿐 아닌 모두투어·노랑풍선 등 경쟁사들도 이미 선택형 상품을 판매에 나섰다. 모두투어는 항공과 호텔을 결합한 ‘에어텔’ 상품을 판매 중으로, 향후 시스템을 고도화해 AI 기반으로 고객이 일정을 구성할 수 있는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 있다.

노랑풍선도 지난 2021년에 개별여행 수요 흡수를 위한 플랫폼을 발 빠르게 개발했다. 현재는 항공·호텔의 교차 쿠폰 할인, 경품 이벤트 등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의 결합 서비스 등으로 앞으로는 패키지여행 시장과 자유여행 시장의 경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하나투어의 고객 선택형 결합상품 '내맘대로' 서비스 홍보 포스터.

하나투어의 고객 선택형 결합상품 ‘내맘대로’ 서비스 홍보 포스터.

여행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의 결합 서비스 등으로 앞으로는 패키지여행 시장과 자유여행 시장의 경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삼성, 美바이오벤처 5번째 투자 “표적항암제 ADC 개발”

삼바·바이오에피스·삼성물산 펀드, 브리바이오에 투자 인공아미노산 기반 접합기술 활용 치료제 개발 본격화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이 참여하는 삼성그룹의 바이오벤처투자펀드가 차세대 표적항암제로 불리는 항체약물접합체(ADC) 기술 보유 미국 바이오벤처에 투자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삼성이 생명과학 분야 신기술 및 사업 개발을 위해 조성한 삼성 라이프사이언스펀드를 통해 미국 바이오의약품 개발회사 브리바이오에 투자한다고 19일 밝혔다.

삼성 라이프사이언스펀드는 삼성물산·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의 공동출자로 조성한 벤처투자펀드로, 삼성벤처투자가 조합을 결성해 운용하고 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삼성 바이오사업 부문은 브리바이오의 독자적인 인공 아미노산 기반 접합기술을 활용한 ADC 치료제 개발에 나선 계획이다.

ADC는 암세포를 파괴하는 ‘약물’과 암세포를 찾아가 결합하는 ‘항체’를 ‘링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

‘링’과 불리는 물질로 결합한 표적항암제라, 브리바이오는 변형 tRNA(운반RNA)를 활용해 인공 아미노산을 단백질의 특정 위치에 결합시킬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 아미노산은 항체 구조 변경을 통해 특정 위치의 아미노산을 대체할 수 있도록 결합할 뿐 아니라, 독자적으로 발현한 다양한 변형 tRNA 들을 활용해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돼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은 브리바이오와 아테노연관바이러스(AAV) 등 다양한 분야의 치료제 개발 및 생산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삼성 라이프사이언스펀드의 바이오벤처 투자는 브리바이오가 5번째로, 앞서 지난 2022년 3월 미국 재규어진테라피를 시작으로 미국 샌다바이오사이언스, 스위스 아라리스바이오테크, 한국 에이전다바이오 등 4개 바이오벤처에 투자했다.

조호성 삼성바이오에피스 선행개발본부장 부사장은 “브리바이오는 견고한 생명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의약품 미충족 수요 해결을 위한 물질 및 치료제 개발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소개했다.

브리바이오의 공동창업자인 존 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삼성의 투자를 통해 치료에 어려운 질환의 새로운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우리의 첨단 단백질 공학기술을 인정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비교만두·맛밤이 빵으로~ CU·CJ제일제당 고급냉장빵 첫선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

비교만두와 맛밤이 빵으로~ CU·CJ제일제당 고급냉장빵 첫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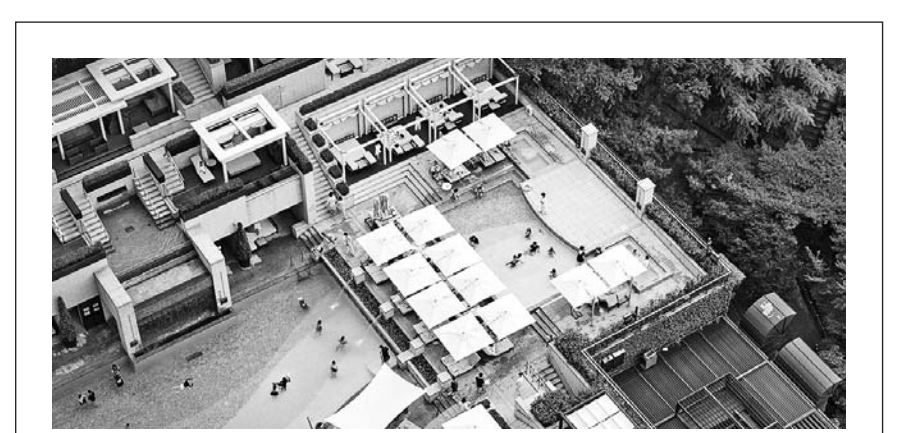
편의점 CU와 식품사 CJ제일제당이 손잡고 프리미엄 냉장빵을 선보인다.

CU는 “CJ제일제당의 대표 브랜드 비교·햇반·백설·맛밤 등을 활용한 프리미엄 냉장빵 4종을 20일부터 차례로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프리미엄 냉장빵 시리즈는 △비교만두소 △햇반 밥알 △백설 양념장 △맛밤의 밤다이스 등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CU가 CJ제일제당과 협업해 냉장빵을 내놓는 이유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편의점에서 간편한 한 끼 식사를 찾는 사람들의 빵 구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예은 기자 pr3028@ekn.kr



서울신라호텔의 어번 아일랜드 정경

서울신라호텔 야외수영장서 “뽕구경할까”

‘어번 아일랜드’ 22일 정식 오픈 온수풀·해외휴양지 메뉴 눈길

서울신라호텔의 야외 수영장 ‘어번 아일랜드’가 오는 22일 문을 연다.

19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어번 아일랜드는 봄 시즌에 남산의 뽕꽃을 여유롭게 조망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수영장은 체온 유지를 위해 온수풀, 온열선이 설치된 선풍기, 히팅캡(근적외선 온열 시스템)을 갖춰 쌀쌀한 초봄에도 따뜻한 야외수영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호텔신라는 올 봄 시즌 어번 아일랜드에서 즐길 수 있는 음식도 메뉴로 편입했다. 특히 ‘뽕구경할까’라는 이름의 빵 구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예은 기자 pr3028@ekn.kr

서울신라호텔의 야외 수영장 ‘어번 아일랜드’가 오는 22일 문을 연다.

19일 호텔신라에 따르면, 어번 아일랜드는 봄 시즌에 남산의 뽕꽃을 여유롭게 조망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수영장은 체온 유지를 위해 온수풀, 온열선이 설치된 선풍기, 히팅캡(근적외선 온열 시스템)을 갖춰 쌀쌀한 초봄에도 따뜻한 야외수영과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호텔신라는 올 봄 시즌 어번 아일랜드에서 즐길 수 있는 음식도 메뉴로 편입했다. 특히 ‘뽕구경할까’라는 이름의 빵 구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예은 기자 pr3028@ekn.kr



현대건설이 올해 수주에 성공한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단지 전경.

“마수걸이도 힘드네” 해외건설 수주 반토막

올 1분기 수주 실적 2.8조원...중동·유럽 제외 나머지 지역 급감 정부 400억달러 목표 적신호...“목표 달성보다 선별수주 중요”

정부가 올해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오시티 등 중동 개발, 원자력발전소 등 해외 건설 수주를 늘리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건설사들의 1분기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건설 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 수준에 그쳐 올해 목표액인 400억달러(52조4000억원)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쌍용건설 등 국내 건설사들 일부가 최근 해외 수주에 성공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23일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코즐로두이 원전 단지 내 2200MW(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새로 짓는 사업으로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원자로를 공급하고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는다. 이번 공사는 총사업비 18조7000억원 규모의 대형 수주에 이 중 현대건설의 수주액만 최대 8조~9조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도 지난 1월 9일 아이티 태양광 사업 수주를 통해 첫 중남미 진출에 성공하며 올해 첫 수주 소식을 알렸다. 쌍용건설은 아이티 MEF가 발주한 아이티 태양광 발전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 건설 공사 및 운영 사업이 최종 발주처의 심사를 통과해 공사를 따냈다. 사업비는 약 5700만달러(76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다른 건설사들은 아직 이렇다할 해외 수주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대우건설, 삼성물산, DL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들도 1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 이날 현재까지 이렇다할 ‘마수걸이’ 해외 공사도 따내지 못했다. 여기에 이들 건설사들은 국내에서도 인건비,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내외외환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이러자 올해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지

난해 동기 대비 ‘반토막’ 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1~2월 세 국내 건설사들의 누적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총 21억5000만달러(약 2조8200억원)로 41억6000만달러(약 5조5000억원)를 달성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이상 감소했다.

이 기간 수주 건수(109건→133건)와 진출업체(152→163개)는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진출국가(62→55개국)는 감소했다.

연초부터 해외건설 수주 금액이 줄어든 데에는 중동과 유럽을 제외한 태평양·북미, 아프리카, 중남미 등 나머지 지역에서의 수주 금액이 전년보다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중동과 유럽의 건설 수주 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209.5%, 375.5% 증가했다. 하지만 태평양·북미(-89.0%), 아프리카(-96.7%), 중남미(-73.4%), 아시아(-30.6%) 등의 건설 수주 금액은 모두 급감했다.

국내 건설사들이 4년 연속 300억달러 이상의 해외 수주에 성공하면서 정부는 올해 400억달러 규모의 해외건설을 수주를 목표로 세웠다. 그러나 연초부터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에서 부진을 보이며, 올해 목표액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목표액에 집중하는 것보다 어떤 수주를 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2월만 보고 올해 목표액을 거론하는 것은 이르며 공사 발주되는 것이 12개월 나뉘 동일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수주 목표액은 사업 계획일 뿐,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숫자를 맞추겠다고 무리하게 수주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수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거래량·실거래가 반등...집값 바닥론 ‘솔솔’

금리인하 기대감·총선 부동산 공약·신생아특례대출 등 영향 매수세 증가 등 지표 회복세 불균 반등 시점은 금리인하 이후

찬바람이 불던 주택시장에서 ‘집값 바닥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전국 주택시장의 바로미터로 평가받는 서울 주택시장의 각종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선 정책금융 영향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라며 집값 반등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많다.

우선 거래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1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571건으로 지난해 9월(3400건) 이후 가장 많았다. 2월 거래량도 이날 기준 2263건이지만 3월 말까지 2월 거래량과 접수하는 점을 고려하면 전월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거래가까지도 회복 시그널을 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45% 올랐다. 이 지수가 상승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실거래가까지 상승은 표본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가격을 비교해 변동폭을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여러 지표 가운데 시장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상승세는 2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조사일 현재까지 신고된 거래량으로 추정한 2월 아파트 실거래가 잠정지수는 서울이 0.30%, 전국은 0.08% 오를 것으로 조사됐다.



찬바람 불던 주택시장에서 ‘집값 바닥론’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매수세도 늘어오고 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5주 연속 상승했다. 3월 둘째 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5.7로 전주(84.7)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며, 100 이하로 떨어질수록 그 반대를 의미한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 같은 회복세 요인으로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감, 4·10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고 있는 부동산 공약, 신생아특례대출 출시 등을 꼽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글로벌 경제가 개선되고 하반기에는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 수요자의 기대감이 시장 회복세의 영향을 미쳤다”며 “거래량 증가에

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일부 정책금융도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등 부동산 공약이 쏟아지고 있고 금리도 몇 달 있으면 내려갈 것이라 기대감이 있다”며 “집값이 더 떨어지는 않을 것이라 소비자들의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집값 반등이나 본격적인 시장회복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주택시장은 지역에 따른 격차가 더 커지고 있고 은행권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도입으로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하기도 어려운 시기”라며 “당분간 현재와 같은

거래량과 하향 안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백세름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거래량이 여전히 평년 수준에 못 미치고, 강화된 대출규제를 비롯해 매수세를 이끌만한 동력을 찾기 어려운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거래회복 시그널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회복 시점은 금리인하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금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며 “신생아특례대출은 소소한 요인이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리가 내려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아파트 공시가격 1.52% 상승...강남3구↑·노도강↓

서울 인천 경기 등 7곳↑ 대구 부산 등 10곳↓...세종 6.45% 최고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가운데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391가구(1.56%)에서 26만7061가구(1.75%)로 3만5000여가구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의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몇 년간 롤러코스터를 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

로 낮은 변동률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가운데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로는 집값이 떨어진 데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이전 수준인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공시가격이 역대 최저치인 18.61%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에는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매년 높아지도록 설계한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 올해는 시세 변동이 공시가격 차이로 이어지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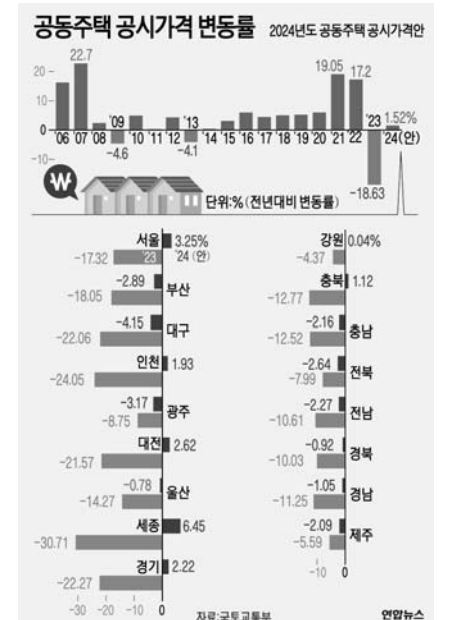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77% 하락했고,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3.64% 올랐다. 서울 아파트는 매매가격지수로는 0.40% 떨어졌으나, 실거래가지수로는 10.02% 올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하락의 방향은 시도별로 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으며,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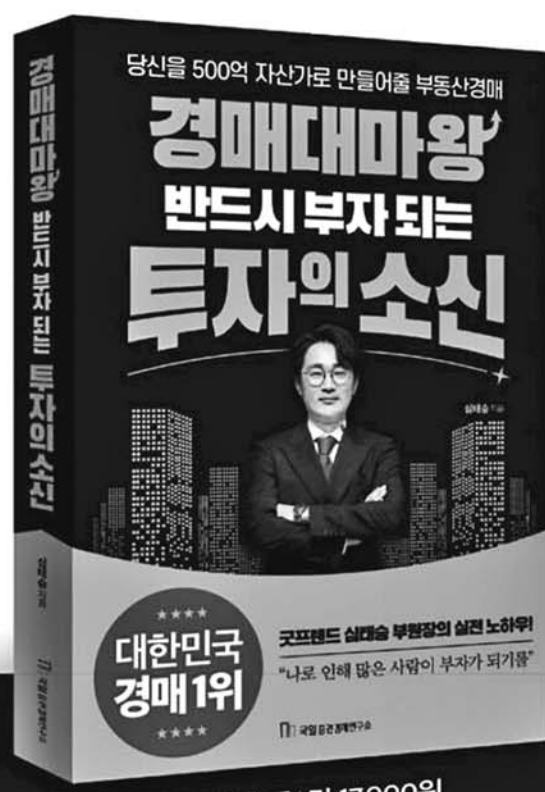
세종 공시가격은 지난해 30.68%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였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2~3%대 하락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구별로 공시지가 변동 폭에 편차가 있었다. 송파 공시가격이



10.09% 올랐으나, 노원(-0.93%)·도봉(-1.37%), 강북(-1.15%)은 하락했다. 서울에선 송파와 함께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1억에 나온 땅, 현장에서 조사해보니 10억짜리 땅?



호재가 숨어있는 부동산을 헐값에 사는 것이 경매다!

계약금 천만원에 월 100만원씩 내며 외제차를 살 것인가?
같은 돈으로 빌라를 낙찰받아 월 45만원씩 받을 것인가?
◆ 단돈 백만원, 천만원으로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라!

대한민국 경매 1위 경매대마왕

굿프렌드 심태승의 수익비법 대공개!

“나는 인감과 등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상식도 없었고 어딜가나 길을 헤매는 심각한 길치였다. 그런 내가 지금은 1,200억짜리 빌딩을 고르며 월세로 4억을 받아 5억을 받아 생각하고 있다.”



구독자 23만
경매대마왕
실전 노하우

“독성 암모니아는 안돼”... 암초 만난 청정수소 수입

ENERGY INDEX (18일)	
원유(달러/배럴)	
브렌트	+1.55 86.89
두바이	+0.55 85.71
광물	
금(달러/온스)	+4.46 2160.36
은(센트/온스)	-0.12 25.27
동(센트/파운드)	+0.55 413.00
납(달러/톤)	-44.64 2064.13
아연(달러/톤)	-34.20 2485.81

SAMSUNG 삼성선물 거래문의: 02-3707-3699

지자체, 수도권 지역 발전사들의 암모니아 도입 의견 반례
독성·냄새 특성 때문에 지역주민 저장시설 반대의견 높아
청정수소·탄소로 만든 합성메탄 주목... 기존 인프라 사용

우리나라는 불리한 자연환경 때문에 탄소중립 핵심 에너지원인 청정수소도 거의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 유력한 수소 운반체로 암모니아가 각광받고 있지만, 암모니아는 독성과 냄새가 난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 실제 수도권 일부 지자체는 발전사의 암모니아 도입의견을 반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청정수소와 포집 탄소를 만든 합성메탄이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수소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일부 지역에 위치한 발전사들이 오는 6월 열리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암모니아 저장시설 건립 의견을 제시했지만 반례된 것으로 알려졌다.

CHPS(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는 사업자들이 청정수소를 발전 연료로 사용해 전력을 생산하면 수요의무자인 한전이 이 전력을 사들이는 시장이다. 정부는 CHPS로 청정수소발전 시장을 육성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이다.

CHPS 입찰에 참여하려면 청정수소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SK E&S가 거의 유일하게 국내서 탄소포집 저장(CCS) 기술을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며, 롯데케미칼이나 삼성물산 등 나머지 사업자들은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할 예정이다.

수소의 매우 가벼운 특성상 이를 수입하려면 액체화하거나 다른 물질과 혼합해야 한다. 액체화수소는 섭씨 영하 253도까지 낮춰야 해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운반체가 수소(H)와 질소(N)를 결합한 암모니아(NH3)이다. 암모니아는 영하 38도로 낮추면 돼 현재도 화학 원료로 국제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액화석유가스(LPG)용 운반선과 저장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발전사들은 천연가스발전과 석탄발전에 각각 수소와 암모니아를 혼합해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암모니아 저장시설 건설계획을 반례하면서 발전사들은



청정수소와 포집 탄소를 결합해 만든 합성메탄은 기존 가스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사진은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주배관.

현재로서는 CHPS 참여가 어렵게 된 상태다. 해당 지자체는 암모니아의 독성과 냄새 특성 때문에 저장시설을 인근밀집지역 인근에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청정수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암모니아가 최적의 수소 운반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주민의

견을 무시하고 저장시설을 지을 수는 없다”며 “발전사들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한 수소 전문가는 “암모니아는 독성 특성 때문에 아마 내륙 이동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입 전량이 해안에서 소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소업계에서는 새로운 운반체로 합성메탄에 주목하고 있다. 합성메탄(CH

4)은 청정수소(H)와 포집 탄소(C)를 결합해 만드는 화합물이다. 천연가스와 성분이 같기 때문에 국내·외에 이미 갖춰진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도시가스 등 천연가스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내륙으로도 얼마든지 운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수소업계에 따르면 일본도 수소 운반체로 합성메탄을 적극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다만 합성메탄은 천연가스와 성분이 같기 때문에 연소 시 탄소가 배출돼 청정성이 인정되는냐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수소업계 한 전문가는 “청정수소의 인정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대부분이 웰 투 게이트(Well to Gate) 방식이기 때문에 수소의 청정성만 인정받으면 된다”며 “여기에 화학하는 탄소의 소스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바이오가스나 발전소 굴뚝 등에서 포집한 탄소를 활용하면 탄소중립성이 인정돼 청정성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소운반체를 무엇으로 정하느냐는 수소 수입국뿐만 아니라 수출국과 함께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소 수출국들과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수소업계는 한목소리를 지켰다.

윤병호 기자 chyybh@ekn.kr

포스코인터내셔널, 인천지역 아동 건강한 성장 돕기 기부금 지원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천 서구 18개교 4300여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음건강지원 프로그램 ‘토닥토닥 몸도계’를 지원하기 위해 총 5500만원을 전달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천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사장 이계인)은 19일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김광석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필승 굿네이버스 인천지역본부장, 허성형 포스코인터내셔널 기업시민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서구 아동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천서부교육지원청 및 굿네이버스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인천 서구내 18개교 4300여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마음건강지원 프로그램 ‘토닥토닥 몸도계’를 지원키로 했다.

‘토닥토닥 몸도계’는 아동들이 스스로 스트레스조절 능력을 갖추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굿네이버스에서 개발한 집단심리 프로그램이다. 학업과 또래관계, 급변하는 사회환경,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까지 겪으며 다양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한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해 5500만원을 지원하고, 인천서부교육지원청은 대상아동 모집, 프로그램 수행과 홍보를 맡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그동안 상생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2020년부터 인천 서구에 매년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해 시민들의 건강한 도시 생활을 지원중이다. 미세먼지 방풍 효과가 뛰어난 단풍나무 등을 식재하고 이끼를 활용한 산책로 등을 조성해 지역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복합 자연친화 공간을 만들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 내 맑은 공기 만들기’ 사업도 추진해 지금까지 약 500대의 공기청정기를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허성형 포스코인터내셔널 기업시민사무국장은 “우리 회사의 에너지사업이 자리잡고 있는 인천 서구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병호 기자

더운 날씨에도 ‘기후금융 투자’ 여전히 부족

세계기상기구, 기후 현황 보고서...올해 재생E 기후금융 부문 추가 지구 표면·해수면 온도 역대 최고...폭염·가뭄·산불 지구촌 강타
“기후금융 투자 6배 이상 증가한 2030년까지 9조달러 도달해야”

기후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기후금융 투자액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전 세계는 역대 가장 더운 날씨를 겪었다. 온실가스 농도도 지난해에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관련 금융 투자는 지금보다 6배 이상 높아야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고 분석된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해 지구 기후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19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기존 온실가스, 온도, 해양, 빙권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기후금융 부문을 추가로 분석했다.

세 가지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의 관측 농도는 지난해 2022년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고 지난해에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는 산업화 이전 대비 50% 높은 수준으로, 앞으로 몇 년간은 기온이 계속 상승할 것임을 의미한다.

지난해 지구 평균 표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평균 대비 1.45±0.12도 높았으며, 174년 관측 기록 중 가장 따뜻한 해였다.

해수면 온도와 해양열 역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 지구 평균 해수면 온도는 지난해 4월부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가뭄으로 갈라진 땅.

7. 8. 9월의 경우 매우 큰 차이로 경신했다.

해양 열용량은 2023년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온난화율은 지난 20년 동안 특히 강하게 증가했다.

지난해 2월 남극의 해빙 범위는 위성시대(1979년 이후) 사상 최저 기록에 도달했다. 6월~11월 초까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극한 기상현상으로는 태풍 다니엘이 홍수로 그리스, 불가리아, 튀르키예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난해 9월 리비아에서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혔다.

지난해 7월 하반기 남부 유럽과 북아프리카에서 극심한 폭염이 발생하여 이탈리아는 48.2도를 기록했고 튀니지(49.0도), 모로코(50.4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프리카 북서부, 이베리아 반도 일부, 중앙 및 남서 아시아 일부에서는

장기 가뭄이 지속된 가운데 중남미가 특히 심했다.

아르헨티나 북부와 우루과이의 경우 지난해 1~8월 강우량이 평균보다 20~50% 낮아 농작물 손실과 저수량 부족으로 이어졌다.

캐나다 산불로 피해 입은 면적이 1490만 헥타르로 장기 평균 대비 7배가 넘었고, 하와이 산불의 경우 1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산불로 기록됐다.

그 외 식량 안보 위기에 처한 사람의 수가 2020년 코로나19 발발 이전, 1억 4900만명에서 3억 3300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WMO 보고서는 전 세계 재생에너지와 기후금융 자금도 분석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지난해 2022년보다 50% 증가해 510기가와트(GW)에 달했으며 이 성장은 지난해 20년 동안 관측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전 세계 기후 관련 금융 흐름은 지난해 2021~2022년 1조3000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2019~2020년 수준의 두 배에 달한다.

하지만 WMO 보고서는 “아직까지 자금 조달 격차가 크고 비조치로 인한 손실 비용이 기후 행동으로 인한 비용보다 큰 상황이며 재정은 계속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WMO는 산업화 이후 기온 상승 1.5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후금융 투자는 지금보다 6배 이상 증가한 2030년까지 9조달러에 도달해야 한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소 비축 검토해야...전담기관 석유공 제안”

김재경 애경엔 선임연구원, 보고서 “수소비축 검토 필요”
2050년 연 2790만톤 필요... 거의 전량 해외수입 의존 전망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청정수소가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청정수소 거의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경 애경엔 선임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정부가 수소 비축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석유공사를 수소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비축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19일 애경엔연구원원에 따르면 김재경 선임연구원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소·암모니아 비축정책 방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 청정수소 수요가 연간 약 2740만~2790만톤에 달한다”며 “하지만 2030년 이전에 국내 공급이 가능한 청정수소 물량은 보령 블루수소 프로젝트의 약 54만톤 정도 되는 등 나머지는 모두 수입에 의존해야 할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높아질 해외 의존도를 감안한다면 수소·암모니아에 대해서도 기존 석유나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와 유사 또는 동일 선상의 ‘안보’ 대상으로 간주해 대비하는 것이 요구된다”며 “단기적 공급 차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수단이며, 국가경제 운용에 필수 자원 안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안보정책 수단인 수소·암모니아 비축을 위한 정책 마련이 현시점에서 가장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2월 제정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도 수소는 핵심자원으로 지정돼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소에 대해 비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김 선임연구원은 석유, 천연가스처럼 비축의무를 실행할 실무 담당 공공기관이 필요하며, 이에 한국석유공사를 수소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석유공사에 일정한 비축의무를 맡기도록 하는 것을 제안했다.

석유공사는 이미 원유 및 석유제품 비축의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수소 비축에도 큰 연관이 있다.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물질이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액체화 또는 다른 화합물로 만들어야 한다. 액체화하려면 섭씨 영하 253도까지 낮춰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 비용이 든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수소(H)와 질소(N) 화합물인 암모니아(NH3)가 주목받고 있다.

암모니아의 액화온도는 영하 33.4도이다. 이는 LPG보편적 영하 42도보다 낮아 프로판 저장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프로판 저장시설을 암모니아 저장시설로 변환해 활용하고 있다.

김 선임연구원은 애경엔 석유공사는 제4차 석유비축계획(제2차 조정)에 따라 2025년 이후 최소한 약 100만배럴 규모의 프로판 저장공통 비축시설 일여분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김 선임연구원은 수소·암모니아의 비축규모는 민간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자들의 일평균 내수판매량(자가소비량 포함)을 정부(수소안보전담기관)의 경우에는 국가 전체 일평균 소비량을 유량 기준으로 석유·가스 등 통상적 관행에 따라 일평균 기준유량 대비 60일분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60일분을 4등분 해 15일분씩 단계적으로 점진적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석유, 천연가스처럼 비축의무를 실행할 실무 담당 공공

기관이 필요하며, 이에 한국석유공사를 수소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석유공사에 일정한 비축의무를 맡기도록 하는 것을 제안했다.

윤병호 기자 chyybh@ekn.kr

산업부, 봄철 최저 전력수요 경신 전망

발전력 감축 위한 정비일정 조정
수요 촉진 대책 등 전방위적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올 봄 역대 최저 전력수요(37.3GW, 작년 봄철 39.5GW)가 시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차질 없는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업부는 19일 이호준 에너지정책실장이 주재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에서 봄철 전력수급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은 수요와 공급의 일치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봄·가을철 전력수급 관리의 어려움

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봄·가을철은 여름·겨울철 대비 냉·난방설비 사용 감소의 영향으로 전기 사용량이 낮아지는 반면, 태양광 발전량은 가장 높아져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당국은 작년보다 1주일 확대·운영하고, 선제적으로 전력계통 안정화 조치를 이행한 후 계통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력제어를 검토·시행하기로 했다.

사전에 마련한 안정화 조치에는 수주요 발전기 정비 일정 조정, 미세먼지 저감

을 고려한 석탄단지 운영 최소화 △공공기관 자가용 태양광 운영 최소화 △수요자원(DR) 활용 등이 있다. 자연스레 전력 공급량을 줄이고 수요량을 늘려 전력의 전력수급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꾀한 것이다.

수요자원(Demand Response) 활용은 전력 수요자의 자발적 참여로 전력 소비패턴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통 불안정성이 심화될 경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불안정 원인을 검토하여 출력제어에 들어간다. 출력제어가 상대적으로 쉽고 연료비가 높은 유연성 전원(석탄, LNG)을 먼저 출력제어 하고, 그래도 출력제어가 필요한 경우 원전과 연료전지·바이오·태양광·풍력 등 모든 발전원이 출력제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is@ekn.kr

한전KPS, SNS 개설 1주년...대국민 소통 강화

발전·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 KPS(사장 김홍연)의 SNS가 개설 1주년을 맞아 대국민 소통 채널로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 소통으로 공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3월 개설한 한전KPS의 SNS 4개 채널은 지난 1년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으로 전력산업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는 등 질적, 양적 성장을 일궈냈다는 평가다.

특히 한전KPS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SNS 4개 채널은 ‘한전KPS 스토리룸(Storyroom)’이라는 공동 브랜드로 콘텐츠의 일관성을 높여

메시지의 신뢰성을 극대화했다. 원자력 발전 원리 및 기술 소개, 전력 생산의 역사 등 한전KPS만이 풀 수 있는 독특한 콘텐츠로 이해관계자들의 흥미를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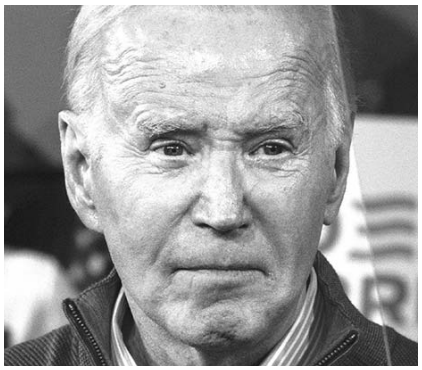
또한 한전KPS의 주요 직군에 대한 소개를 임직원 브이로그(V-Log)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채용브랜드 제고와 함께 취업준비생들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입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 결과 한전KPS 4개 SNS 채널에는 지난해 1년간 총 214개의 콘텐츠가 업로드됐으며, 누적방문자 및 팔로워 수가 총 2만 명을 넘어섰다.

전지성 기자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우방국 美바이든과 '대립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가자 민간인 피해·라파 지상전 등 양국간 해법 갈등 깊어져 '노골화' FT "행보 뒤에는 극우 세력 지지"

가자지구 전쟁을 두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국의 가장 큰 우방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가자지구에서의 민간인 피해, 전후구상 '두 국가 해법', 라파 지상전 등을 둘러싼 양국 지도자 간 갈등을 언급하며 네타냐후 총리가 전과 다르게 노골적으로 백악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전까지 미국 정가와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맺어왔다.

FT는 세계 지도자 중에 네타냐후만큼 "미국 권력층을 잘 파악하고 구애받은 인물은 없다"면서 "그는 전·현직 미국 대통령 4명을 구슬리며 공화당과 그 지지기반인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친구로 만들었고, 미국과의 항구적 군사·외교 동맹이라는 그 어느 나라도 누리지 못한 혜택을 얻었다"고 평했다.

특히 작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미국의 무기 공수는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자렘해왔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스라엘 편을 들었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이스라엘의 주장을 옹호했다.

그러나 가자 남부 라파에서 지상작전을 계획하고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는 전면전 위기까지 이른 지금, 이스라엘로선 미국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백악관에 맞서는 선택을 하면서 그 지원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는 평가다.

미국과 이스라엘 양국 지도자들 간의 충돌은 전에도 있었지만 네타냐후 총리만큼 노골적으로 대립각을 세운 적은 없었으며, 네타냐후 총리 개인으로서도 정치적 도박을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큰 위협을 감수한 적은 없다고 FT는 분석했다.

에후드 올메르트 전 이스라엘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에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그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면 결국 이스라엘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행보 뒤에는 이스라엘 극우 세력이 있다.

FT는 네타냐후 총리의 우파 기반이 그를 미국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스라엘인으로 묘사하면서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를 지낸 마틴 인디크는 "네타냐후 총리가 미-이스라엘 관계를 격정했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하도록 내버려 두진 않았을 것"이라며 그의 주요 동기는 극우 연정 상대들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디크 전 대사는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보다 맞서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가만히 그 가치가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디크 전 대사는 또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초당적 지지를 파괴하는 데에도 성공했다고 꼬집었다.

네타냐후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 간의 '결별'은 미 정보당국이 네타냐후 총리의 핵심 정치 전략에 대한 연례 평가를 발표한 후에 이뤄졌다고 FT는 짚었다.

연례평가에서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 이맘의 기습 공격에 어떠한 역할을 하거나 관련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하마스 격퇴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 또 네타냐후 총리의 권력 장악력은 미약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주미 이스라엘 대사 지낸 미카엘 오렌은 "이는 미-이스라엘 관계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무기를 보낼지는 확실치 않다고 내다봤다.

오렌 전 대사는 미국이 보내는 무기 종류를 바꿀 수도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그는 "이미 원조의 양은 아니더라도 내용이 바뀌었다"며 부수적인 피해가 훨씬 적은 정밀폭탄이 전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두 정상은 이날 약 한달 만에 45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라파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라파지역에 대한 공세는 전쟁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대규모 군사작전을 라파에서 벌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日, '마금' 벗었지만 엔화는 호재 없었다

<마이너스 금리>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해제했다. 그러나 일본 엔화 환율은 달러당 150엔대로 급등하는 등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19일까지 이틀날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마이너스(-) 0.1%~0%에서 0%~0.1%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은 2016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이로써 일본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의 핵심인 마이너스 금리에서 본격 탈출하게 됐다.

일본은행은 또 금융완화정책의 일환이었던 수익률곡선통제(YCC)를 폐지하고 상장지수펀드(ETF), 일본부동산투자신탁(J-REIT) 매입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2010년에 시작된 ETF와 J-REIT 매입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뒷받침하면서 금융완화를 강력하게 추진한 구로다 하루히코 전 일본은행 총재 재임 시기에 활발하게 이뤄졌다. 일본은행이 작년 9월 집계한 보유 ETF의 시가는 60조 6955억엔(약 544조원)으로, 장부가(37조1160억엔) 대비 평가이익이 23조5794억엔(약 211조원)이었다. 일본에서 '장단기 금리조작'이라고 하는 YCC는 금리 변동 폭을 설정하고 금리가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국채를 대량 매입하는 정책으로 2016년 9월 도입됐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단기금리를 -

중앙은행, 17년만에 금리↑...단기금리 -0.1~0%→0~0.1% 인상 수익률곡선통제 폐지·상장지수펀드·부동산투자신탁 매입도 중단 비둘기파적 태도·연내 추가 금리 인상 언급 없어 엔화 가치 하락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대규모 금융완화'의 핵심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이례적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8년 만에 탈출하면서 다시 '금리 있는' 시대에 돌입하게 됐다. 사진은 한 남성이 이날 일본은행 본부를 지나가고 있다. AP=연합뉴스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0% 정도로 유도한다는 방침을 고수했지만, 장기금리 변동 폭을 조금씩 확대해 왔다. 재작년 12월 엔 금리 변동폭 상한을 종전 0.25%에서 0.5%로 올렸고, 작년 7월에는 사실상 0.5%에서 1%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YCC 폐지에도 일본은행은 국채 매입을 지속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일본은행의 이날 결정은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 정책 변경의 주된 조건으로 강조돼 온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

의 선순환'이 확인된 결과로 보인다. 일본은행은 이날 성명에서 "임금과 물가 상승을 평가한 결과, 인플레이션 2% 목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준으로 달성될 가능성이 가시화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제 일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4월 이후 22개월 연속 2%대를 웃돌고 있다. 또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력인 '레노'(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지난 15일 중간 집계에서 평균 임금 인상이 작년 같은 시점보다 1.48%포인트 높은 5.28%로 파악됐다

골드만 "연준, 올해 금리인하 4→3차례"...6월 첫 인하 전망도 '위태'

금융시장의 빅 이벤트로 꼽히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임박한 가운데 올해 미국 금리인하 시점이 늦어지고 인하 횟수 또한 줄어든 것 등이 관측이 힘을 실리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채 2년물과 5년물 금리는 올해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시장은 19~20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FOMC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이번 달 조기 금리 인하 기대는 잠잠해진 상태로,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이번 달 금리 동결 가능성을 99.0%로 보고 있다.

더 나아가 연준의 금리 결정을 예측하는 스와프 계약은 이날 한때 6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50% 미만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6월 금리인하 확률이 50%를 살짝 넘는 선에서 마감됐다.

스와프 트레이더들은 아울러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공개한 연준 인사들의 올해 금리인하 전망치(중간값) 0.25%포인트씩 3회, 즉 0.75%포인트 인하보다 적은 0.69%포인트 인하를 점쳤다.

리처드 벤스테인 어드바이저의 마이클 콘토폴로스 채권 담당 이사는 "여전히 유동성이 넘쳐난다"며 "금융 여건 완화, 낮은 실업률과 고착화하는 인플레이

션, (기업) 이익 증가 가속화, 투기 만연 등을 감안할 때 금리인하에 도움이 되는 환경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 수준인 4.749%,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최고인 4.367%를 각각 기록했다.

골드만삭스도 17일 메모를 통해 "예상보다 소폭 높은 인플레이션 경로"를 이유로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을 수정해 올해 금리인하가 0.25%포인트씩 4차례가 아닌 3차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6월에 첫 인하를 시작하고, 내년 4차례, 2026년 마지막 한차례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최종 전망치

는 종전과 같은 3.25~3.5%를 그대로 유지했다.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이 이전 둔화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연준 인사들의 확신이 줄어들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너무 오랫동안 고금리 유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6월에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주에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미국 연준을 비롯해 영국, 스위스,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등이 기준 금리 결정을 한다.

호주중앙은행(RBA)은 19일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35%로 3회 연속 동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굿네이버스
Good Neighbors-ro

평범한 일상에서도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기로 오늘도 우리는, **굿네이버스**로 향합니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좋은 이웃이 되고 싶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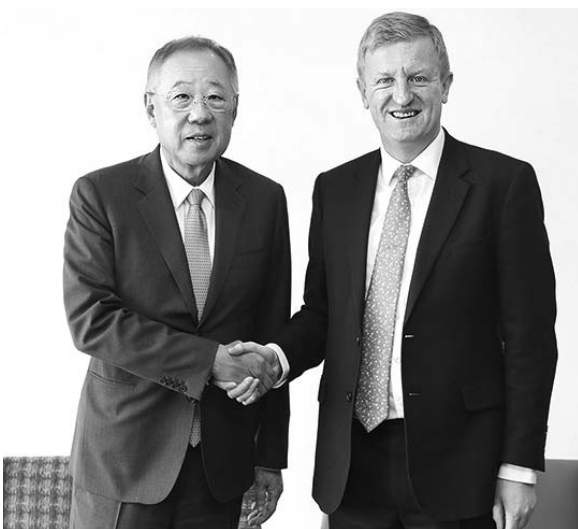
류진, 英 부총리 만나 양국 협력방안 논의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국내 6개사 참석, 해상풍력·신재생·인프라 등 협력 유망분야 논의

한국경제인협회는 류진 회장이 19일 오전 FK타워에서 올리버 다우든 영국 부총리, 폴린 크로스 주한 영국대사 등을 만났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이들을 비롯해 영국과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기업인들을 만나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에는 롯데, 한진칼, LS, 호반그룹, SPC, 세아제강지주 등 국내 기업 6개사가 참석했다. 영국과의 경제협력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해상풍력·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양국 협력 유망분야를 논의하고, 영국 현지 진출 시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담' 참석차 방한한 다우든 부총리는 작년 영국 국민순방 당시 수백 총리 주최 한국 경제사절단 리셉션에서 류 회장과 만나 양국 협력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에서 향후 협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왼쪽)이 19일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방문한 올리버 다우든 영국 부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력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한-영 양국 경제계는 수교 140주년 및 영국 국민방문 10주년을 맞아 '한-영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외교·안보를 비롯해 경제·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향후 글로벌 현안에 대해 함께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여현우 기자 yes@ekn.kr

GS리테일, '어르신 일자리' 지원 앞장

서울시와 협약...어르신 도보배달원 채용·관리·친환경배달 추진

GS리테일은 서울시와 어르신 도보배달원 채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어르신 일자리 동행' 사업 협약을 맺었다.

19일 GS리테일에 따르면, 18일 서울시장에서 열린 '어르신 일자리 동행' 사업 협약식에서 양측은 △어르신 도보배달원 채용 및 관리 △어르신 일자리 동행 사업 홍보 및 사업 활성화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선도모델 도입 친환경배달을 통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경영 실천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배달서비스 중계 플랫폼 '우리동네 딜리버리'를 운영하며 배달원을 추가 모집하려는 GS리테일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서울시가 서로 시너지를 내기 위해 손을 잡은 것이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1000명을 목표로 올해 250명의 어르신 도보배달원을 우선 모집한다. GS리테일은 '우리동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과 김철원 서울시 강철원 정무부시장의 18일 서울시장 8층 간담회장에서 '어르신 일자리 동행' 업무협약 체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네 딜리버리' 도보 배달원으로 어르신을 고용해 실직 기반의 배달수수료를 지급하고, 시니어 맞춤형 배차 및 배달가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진석 GS리테일 플랫폼BU장(부사장)은 "시니어 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새로운 활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손잡고 어르신 일자리 동행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보배달원 참여를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은 서울시 어르신취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예은 기자 pr9028@ekn.kr

아이에스동서, CNGR과 배터리 재활용 협력

〈글로벌 전구체 생산 전문기업〉

국내 유일 2차전지 재활용회사...양사 사업 시너지·해외 적극 추진

아이에스동서(이하 ISD)가 글로벌 전구체 생산 전문기업 CNGR과 19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품 장기 공급과 공동 마케팅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민석 아이에스동서 대표이사, 이준길 아이에스동서 대표이사, 토니 타우 CNGR 부회장, 백준협 CNGR 글로벌 리사이클링 본부 대표 등 양사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아이에스동서는 전기차 해체부터 원재료 회수, 제품화까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체 밸류체인을 구축한 국내 유일의 2차전지 재활용 회사다. 최근 경기도 화성에 자회사인 아이에스비엠솔루션의 전처리 공장을 준공하고 작년에 인수한 유럽의 BTS 테크놀로지를 통해 폴란드에 전처리 공장을 설립하는 등 국내외에 재활용 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CNGR은 양극재 핵심 원료인 전구체 분야에 있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 국내에서는 포스코와 니켈 제정련 및 전구체 공장에 대한 합작사업을 진행했다. 이어 최근 모로코 산업단지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제정련, 전구체 및 배



이준길 아이에스동서 대표이사, 권민석 아이에스동서 대표이사, 토니 타우 CNGR 부회장, 백준협 CNGR 글로벌 리사이클링 본부 대표 등 양사 대표가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터리 재활용 후처리 전용공장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에 아이에스동서와 이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차전지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배터리 핵심 소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아이에스동서와 CNGR이 재활용부터 전구체로 이어지는 자원순환체계 구축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양사는 향후 사업간 시너지를 강화하고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CNGR은 글로벌 전구체 1위 업체로서 아이에스동서의 리사이클링 사업 글로벌 확장 전략에 있어 핵심적인 파트너"라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속적인 해외 투자 및 거점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자랑스러운 中企人 김동섭·김재중 대표 선정

〈효동기계공업〉

〈라피치〉

중소기업중앙회·중소벤처기업부 올해 1분기 두 대표 선정
효동기계공업 1983년 설립...기술개발 매진 선도기업 성장
라피치, 대화형AI 제공...빅테크와 손잡고 해외 AI시장 도전

올해 1분기(1~3월)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효동기계공업 김동섭 대표, ㈜라피치 김재중 대표 2명이 선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두 대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효동기계공업(주)은 볼트·너트 등 산업용 금속부품을 만드는 금속성형기계 제조기업으로, 김동섭 대표가 지난 1983년 설립해 기술개발에 매진한 결과 기계산업 기술발전 선도기업으로 성장했다.

2018년 세계 최초로 2200톤 초대형 단조기계 포머를 개발한 것으로 시작으로 △2019년 국내 최초 열간포머 개발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 링크포머 개발 △국내특허 26건, 해외특허 2건 취득 등을 인정받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됐다.

또한, 일본·중국·독일 등 해외시장에 진출해 2019년 3000만불 수출의탑 수상, 2021년 금탑산업훈장 표창, 2022년 연간 수출액 403억원 달성 등 성과도 일궈냈다.

㈜라피치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와 음성인식 인공지능 서비스를



김동섭 효동기계공업 대표



김재중 라피치 대표

제공하는 기업이다. 20년 이상 음성인식 분야 연구개발을 지속해 AI 가장 개입 서비스와 음성인증 AI 서비스를 주요 통신사 및 금융권 플랫폼에 공급하고 있다.

김재중 대표의 기술경영 결실로 라피치의 매출은 2021년 68억원에서 지

난해 170억원으로 성장했다. K.T·SK텔레콤·AVAYA 등 국내외 빅테크 기업과 손잡고 기술교류 및 고도화를 추진하며 해외 AI시장 진출도 준비중이다.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은 중기중앙회와 중기부가 모범 중소기업인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합리화·수출증대·기술개발 등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을 발굴·포상하는 제도다. 차기 선정접수는 오는 4월 중에 받을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현대차, 韓 첫 개최 MLB 월드투어 후원

〈메이저리그〉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 정규시즌 개막전 등 6경기 개최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6대, GV80 등 운영차량 18대 제공

현대자동차는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를 후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시리즈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MLB 경기다. 17일부터 21일까지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MLB 정규 시즌 개막 2연전과 LG 트윈스, 키움 히어로즈,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이 두 팀과 대결하는 스페셜 경기 등 총 6경기로 구성됐다.

현대차는 서울 시리즈 운영차량으로 수소상용차인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6대를 비롯해 아이오닉 5 3대, 아이오닉 6 3대, G80 1대, GV80 1대, 스타리아 4대 등 총 18대의 차량을 제공한다.

현대차는 20일과 21일 열리는 개막전 1·2차전 중 처음으로 홈런을 친 선수에게 아이오닉 5를 제공하는 이벤트 'The first IONIQ 홈런'을 진행한다.

이어 현대차는 서울 시리즈 기간 동안 고척스카이돔 야의 공간에 서울 시리즈를 위해 특별 제작한 아이오닉 5 아트카를 전시한다. 아이오닉 5 아트카는 LA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가 열리는 고척스카이돔 앞에 현대차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가 세워져 있다.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로고와 상징색을 활용하여 만들어져 경기장을 찾는 고객이 꼭 방문해야 하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기장 내 답장, 전광판 하단, 현수막, 인터뷰 뒷배경 등에 현대자동차 로고를 노출해 브랜드 홍보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대한민국 최초의 고무모델 토니를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를 양산하는 등 모빌리티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국내 최초 MLB 공식 경기라는 야구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해 기쁘다"며 "MLB 최초로 수소전기차를 공식 운영 차량으로 제공하는 것과 같이 앞으로도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이자 모빌리티 업계의 퍼스트 무버로서 다양한 도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현우 기자 yes@ekn.kr

넥센타이어 임직원 '사랑의 헌혈' 동참



넥센타이어 임직원들이 지난 18일 넥센중앙연구소에 마련된 '사랑의 헌혈 캠페인' 행사장에서 헌혈을 하고 있다.

중부발전, 서천시장 화재복구 성금 3천만원

한국중부발전이 협력기업 협의체인 '해외동반진출 협의회' 대표들과 자발적으로 모금한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복구 성금 3천만원을 서천군청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해당진 회원사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중부발전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활동을 지원하며 발생한 성과공유금을 바탕으로 조성됐다.



한국중부발전이 협력기업 협의체인 '해외동반진출 협의회' 대표들과 자발적으로 모금한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복구 성금 3천만원을 서천군청에 전달했다. (왼쪽에서 세 번째 한국중부발전 이영조 기획관리부부장, 오른쪽에서 두 번째 해동진 부회장사 조윤수 대표)

성과공유금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 동반자적 관계로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절감 등을 통해 창출되는 성과를 공유

매년 양산·창녕 등서 단체 헌혈 헌혈증 기증, 혈액 수급에 힘모배

넥센타이어는 지난 18일 넥센중앙연구소에서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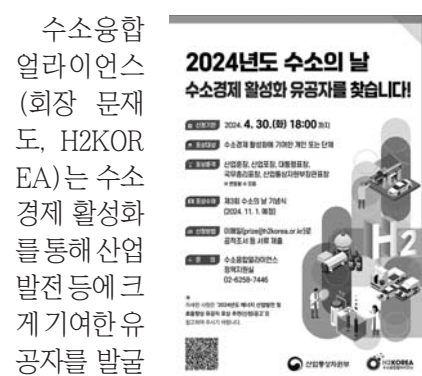
넥센타이어는 매년 양산공장과 창녕공장 등 각 사업장에서 임직원 단체 헌혈 행사뿐만 아니라 헌혈증을 기증해 혈액 수급에 힘을 보태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앞으로도 헌혈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며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현우 기자

하며 발생한 금액으로, 중부발전은 이렇게 창출된 이익금을 지역사회와 협력기업에 환원하는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해왔다. 이날 전달식에는 중부발전 이영조 기획부사장, 국현철 신서천발전본부장, 김기용 서천군수, 해동진 조윤수 대표, 이원찬 이사, 유병설 사랑의 열매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식에서 김기용 서천군수는 "중부발전은 지난 1월 임직원 성금 3300만원을 이미 전달했는데, 이번에 협력기업들과 공동으로 다시 성금을 기탁해주어 그 진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하다"며 "이번 성금은 지역의 공공기관인 중부발전 뿐만 아니라 협력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살피는 활동이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is@ekn.kr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자 접수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회장 문재도, H2KOREA)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통해 산업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한 포

상인 '2024년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자 포상' 추천을 오는 30일 18시까지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소경제 활성화 유공자 포상은 대한민국 수소경제 선도 및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개인,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포상 대상은 수소경제·수소에너지 분야 기술개발·보급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산업훈장·산업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등을 훈격에 따라 포상한다.

관심 있는 수소 종사자, 기업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추천(신청)서, 공적조서 등을 작성해 H2KOREA 정책지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포상에 대한 접수는 30일 18시까지 접수 완료된 신청분에 한해 포상 후보자로서, H2KOREA 자체심사, 공개 검증,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포상 수여는 11월 1일 '제3회 수소의 날 기념식'에서 시행된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병호 기자 chyybh@ekn.kr

블보, '레이디스 데이' 성료 스웨디시 라이프스타일 체험

블보자동차코리아는 지난 15일 '블보 레이디스 살롱 2024'의 첫 번째 프로그램인 '블보 레이디스 데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블보 레이디스 살롱'은 블보자동차코리아가 지난 2022년부터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이벤트다. 여성들이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와 영감을 공유하고 '스웨디시 라이프스타일'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콘셉트로 기획됐다.

블보 레이디스 데이는 서울 강남 소재의 레스파스 에트나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총 200명 이상의 여성이 참여했다. 블보 레이디스 데이의 메인 이벤트는 △보타니컬 플로럴 가든 클래스 △정우철 도슨트의 아트토크 △인사이드 스타일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콘셉트로 기획됐다. 블보 레이디스 데이는 서울 강남 소재의 레스파스 에트나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총 200명 이상의 여성이 참여했다. 블보 레이디스 데이의 메인 이벤트는 △보타니컬 플로럴 가든 클래스 △정우철 도슨트의 아트토크 △인사이드 스타일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콘셉트로 기획됐다. 여현우 기자

전남도, 비자제도 개선으로 인력난 '숨통'

‘외국인력 고용비용 산정 기준’ 개정...외국인 숙련인력 수급 안정 기대

전라남도는 법무부에 건의한 외국인력(E-7) 고용비용 산정 기준이 최근 개정돼 지역 조선업계의 응접 등 산업계의 외국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전남도청.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내국인의 30%까지 고용이 가능한 외국인력(E-7) 고용비용 산정 시 별도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숙련기능인력(E-7-4, 30%)과 지역특화형비자(F-2, 50%) 인력까지 합산했다. 이때문에 외국인력(E-7) 고용 규모가 그만큼 제한을 받아 업계에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지역 조선업계는 이 같은 고용 규모 합산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인턴 과정을 수료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채 퇴사하거나 해외 취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기존에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도 비자가 6개월만 연장(통상 2년 연장)돼 고용 불안에 시달렸으며, 이로 인한 숙련인력의 유출 우려가 컸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외국인력(E-7) 고용비용 산정 시 숙련기능 인력과 지역 특화형 비자를 제외함으로써, 외국인 인력 수급에 원활해질 전망이다.

외국인력(E-7)은 현대상호중공업에만 1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대별

산단과 대한조선에 포함하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선업이 호황기에 진입함에 따라 인력 수요가 급증했으며, 전남도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해 불합리한 비자제도 개선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그동안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기간 단축(5년→4년) △특정활동 외국인력(E-7) 소득기준 국민총소득(GNI) 80%→70% 완화 △고용허가제(E-9) 조선업 쿼터 신설(연 5000명) △지역특화비자 1년 이내 근무처 변경 제한 등의 개선이 이뤄져왔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조선업은 서남권 경제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조선업 인력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정진 기자 leejj0337@ekn.kr

양재생 제25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취임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전력 기울일 것”



양재생 신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양재생 제25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취임해 3년 임기에 들어갔다.

부산상의 이날 오후 양 회장이 출근해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 15일 부산상의 의원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25대 부산상의 회장에 선출됐으며 2027년 3월 중순까지 3년간 부산상의를 이끌게 된다.

양 회장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현안은 물론 복합 리조트 유치, 스타트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5대 부산상의 의원에는 부산은행과

금양, 동화엔텍, 팬스타라인닷컴 등 지역에서 중량급 있는 다수 기업이 새롭게 참가해 부산상의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또 지역 주요 기업을 대표해 상의 활동을 전개할 부산상의 의원이 1세 경영인에서 2세 경영인으로 바뀐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다. 윈스텔, 세운철강, 대한제강, 광명인크레조, 태웅, 대한제강 등을 대표하는 상의 의원이 월로 기업인에서 모두 2세 경영인으로 교체됐다. 부산=강세민 기자 semin3824@ekn.kr

횡성군, 드론방제단 'F4' 출범...“농촌 인력난 해소”

횡성군농업기술센터는 19일 갑천면 전촌리에서 첨단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드론방제단 'F4' 출범식을 가졌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6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드론방제단 F4(Flying 4-H)를 조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출범식에서는 방제단의 경과보고와 축사, 방제 시연, 향후 계획 설명을 진행한 뒤 4-H연합회원들의 안정적 영농정착과 4-H의 활성화를 위한 화합행사로 이어졌다.

드론방제단은 4-H 연합회 회원으로 구성됐다. 횡성군 4-H 연합회는 지·덕·노·체 이념을 바탕으로 만 20~39세로 이루어진 청년 농업인 단체로,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임종안 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4-H의 청년농업인들과 함께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그들이 첨단 농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횡성=박예스터 기자 ess003@ekn.kr

김동연 “2035년까지 42개노선 645km 철도건설”

〈경기도지사〉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발표... 10년간 예산 40조7000억원 투입 고속·일반·광역 27개·도시철도 15개 노선에 반도체선·동서횡단선 추진 “도민 교통복지 증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철도시대 개막할 것”

경기도는 오는 2025년까지 42개 노선 총연장 645km의 철도를 건설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경기철도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을 발표했다.

철도기본계획에 따르면 계획기간인 2026년부터 10년간 총 사업비 40조7000억원을 투입해 고속·일반·광역철도 27개 노선과 도시철도 15개 노선을 건설한다.

특히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지원하는 하기위해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원삼 반도체 클러스터~이천 부활을 연결하는 반도체 노선을 신설하고, 이 노선을 화성, 전곡항까지 연결하는 경기남부 동서횡단선을 건설기로 했다.

도는 우선 북부 고속철도 확대 방안으로 KTX를 정차역인 고양 행신 차량기지에서 경의선 능곡역을 연결하는 선로를 신설해 파주 문산까지 운행하는 계획을 담았으며, SRT는 GTX-A 선로를 이용해 수서에서 삼삼역까지, GTX-C 선로

를 이용해 의정부역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도 서비스 낙후지역을 위해서는 지난해 말 개통해 단선으로 운영 중인 경원선 동두천~연천 구간을 복선화하고 철원까지 확대하며 의정부에서 고양 능곡을 연결하는 교외선은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도권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한 광역철도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신철 신림선은 2022년 11월 시흥시, 광명시, 금천구, 관악구 등 4개 지자체와 도가 협약해 검토한 노선으로 확정시 광명, 시흥 등 서부권 지역주민들의 서울 접근이 한층 더 원활해지게 된다.

별내선 의정부 연장 노선으로 경기도 순환철도망을 완성하고, 추가 검토 사업인 3호선 경기남부 연장은 도가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등 4개 지자체와 협약해 수서 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해 화성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러면서 “단순히 노선을 늘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철도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속도를 높이는 것만이 아니다”라며 “1400만 경기도민, 나아가 더 많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밖에 수도권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한 광역철도 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서울시, 인천시 등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신철 신림선은 2022년 11월 시흥시, 광명시, 금천구, 관악구 등 4개 지자체와 도가 협약해 검토한 노선으로 확정시 광

명, 시흥 등 서부권 지역주민들의 서울 접근이 한층 더 원활해지게 된다.

또 별내선 의정부 연장 노선으로 경기도 순환철도망을 완성하고, 추가 검토 사업인 3호선 경기남부 연장은 도가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등 4개 지자체와 협약해 수서 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해 화성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 노선은 현재 공청 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운영 결과에 따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했다. 경기=송인호 기자 sih31@ekn.kr

안동시, 日 소프트뱅크 지역 활성화 인턴프로그램 유치

국내 첫 ‘TURE-TECH’ 개최지 선정 지역사회 공헌 대학생 차세대 리더 육성



안동시가 일본 소프트뱅크 인턴 프로그램 ‘TURE-TECH’ 개최지에 선정됐다.

안동시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진행하는 지역활성화와 인턴프로그램인 ‘TURE-TECH’를 국내 처음으로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본 이동통신사인 소프트뱅크에서 실시하는 지역 활성화 인턴프로그램 ‘TURE-TECH’는 자치단체가 내포하는 사회적 과제를 위한 해결방안을 대학생과 함께 5일간의 현지조사 및 워크숍을 통해

본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3000명 정도가 신청하고, 엄격한 서류 및 면접심사 후 30명이 선발돼, 과제별로 5팀으로 나뉘어 자치단체가 선정한 과제에 대해 약 5일간 현지조사 및 시민 인터뷰 등을 실시한다.

프로그램 마지막 날에는 워크숍 성과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시장과의 토론회를 개최, 그 결과를 시장 해결과제로 시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며 5일간의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안동시는 소프트뱅크와 정기적인 운

라인 회의와 상호 협력을 통해 안동시의 과제 5가지를 선정, 9월에 개최될 워크숍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저출생, 도시소멸, 해외 관광객 유치 등 안동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도약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은 매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과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객관적인 분석과 창의적인 제안은 안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했다. 안동=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IFEZ “핵심전략산업 집중...올해 6억달러 투자유치”

IFEZ는 19일 올해 외국인 투자유치 목표액을 전년도 대비 2억달러 증액된 6억 달러로 정하고, 달성을 위해 △첨단 글로벌 기업 유치 및 창업생태계 조성, 시민 체감 중심의 서비스산업 허브(HUB) 조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유치 환경 조성을 주요 추진 전략으로 밝혔다.

먼저, 기업 투자하기 좋은 글로벌 정주 환경과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헬스케어, 스마트제

창업생태계·신성장산업 유치 청라 코스트코 준공 등 허브 조성

또 시민체감 중심의 서비스산업 허브 조성과 관련해 △마린유엔트 연구소 협약 △인천글로벌캠퍼스(IGC) 학생기숙사·교수아파트 증축 △청라신세계 복합쇼핑몰 사업 △청라 코스트코 준공 △바이오복합물류센터 개발 착공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카지노 시설 인허가 지원 △신규 복합리조트 투자유치 △송도세브란스병원 및 청라의료복합타운 공사 진행 △블록체인 금융 샌드박스 추진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 산업 유치에 적극 나

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성장산업의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송도바이오 클러스터 확대 조성을 비롯해 △청라 BMW 연구개발(R&D) 센터 건립 준공, △마크로젠 유전체 분석 연구 시설 건립 착공,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스캐티드 소세·부품 인증평가센터 건립 등에 적극 노력한다. 특히 신산업 분야 기업·연구기관 투자유치를 통해 송도국제도시의 바이오의약 역량과 핵심 원부자재 공급망을 확충,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로서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할 계획이다. 인천=송인호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2024 구례 300리 벚꽃축제

2024. 3. 22. | 금 - 3. 24. | 일

주무대 구례읍 서시천체육공원 / 보조무대 문척면 전천마을 벚꽃길 차없는 거리 2.5km(문척면 월평교 ~ 오봉정사)

주최·주관 구례 300리 벚꽃축제추진위원회 후원 구례군 GURYE County

주요행사

벚꽃음악회, 벚꽃버스킹, EDM공연, 태군노래자랑, 최태성강사 인문학강연

체험행사

내사진을보여줘, 벚꽃길걷기, 울벚나무목공체험, 벚꽃굿즈제작, 어린이할쏘기 및 전통놀이체험

판매장터

오일장 청년점포, 신활력플러스사업단, 푸드트럭 먹거리장터, 농산물판매장터

개막공연 | 서시천체육공원 3. 22. | 금 오후 7시

가미

케이시

김추리

에너지 시장 새 바람 일으키는 해상풍력

EE칼럼

Energy&Environment

박성우

한국에너지공단
국제협력실장



바람은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의 자전, 산과 들, 바다 등의 불규칙한 지표면 등 여러가지 요인들 때문에 발생한다.

기원전 3천년경 고대 이집트에서는 노 젓는 수고를 덜기 위해 배에 돛대를 세워 바람을 동력으로 이용하였다. 육지에서 바람을 동력으로 사용한 풍차의 역사는 천 년 이상 거슬러 올라간다. 밭에 물을 대고 곡물을 뺏고 물을 퍼 올리는 용도로 풍차를 이용하면서 고되고 시간이 많이 드는 노동이 크게 줄었다.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의 대항해시대는 기술사적으로 범선 시대라고 할 수 있다. 한강 유람선 크기의 범선이 바람에만 의존해 세계의 바다를 누볐다. 당시 범선 항해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풍지대였다. 적도와 북위 및 남위 30도 지점은 무풍지대가 존재하는 지역이다. 무풍지대로 인해 범선의 항해 경로는 매우 길었다. 유럽에서 북미로 항할 때는 남아프리카까지 내려가서 편동풍인 무역풍을 이용했고, 유럽으로 돌아올 때는 보스턴까지 올라간 다음 편서풍을 탔다.

바람으로 전기를 만드는 풍차는 미국의 찰스 브러시가 최초로 개발했다. 육의 조영용인 브러시 등은 에디슨 전기의 강력한 경쟁 상대였다. 1880년에 약 6천 개의 브러시 등이 미국 곳곳을

밝혔다. 브러시 등으로 브러시는 부자가 되었고, 클리블랜드에 있던 그의 집은 석유왕 록펠러 등의 거부들이 모여 살던 거리에 있었다. 1887년에 찰스 브러시는 자신의 집 뒷마당에 18미터 높이의 풍차를 세워 지하실에 있는 발전기와 배터리에 연결하여 자신의 저택에 불을 밝혔다. 바람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과였다.

현대적 풍력 터빈의 본격적 개발은 덴마크에서 이루어졌다. 덴마크의 양자 물리학자로 1922년에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닐스 보어가 후원하여 설립된 리스 국립연구소에서 풍력에 대한 연구를 주도했다. 보이는 영화 오펜하이머에서 나치 치하의 덴마크에서 미국으로 탈출해 오펜하이머의 스승으로서 원자폭탄 개발을 위해 여러가지 조언을 하는 인물로 나온다. 보이는 전쟁이 끝나고 코펜하겐으로 돌아와 원자력의 평화적 활용을 위해 연구소 설립을 주도했다. 여기서 개발한 덴마크산 터빈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치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 전 세계 풍력 개발의 90%가 캘리포니아에서 이루어졌다. 1987년에 캘리포니아에 설치한 새 터빈 중 90%는 덴마크제였다.

덴마크는 1991년 세계 최초로 해상풍력발전단지도 개발했다. 국영 에너지기업인 오스테드가 덴마크 남부 롤란드 섬의 얇은 바다에 11기의 해상풍력 터빈을 설치했다. 바다에 터빈을 설치하면 더 강한 바람을 더 자주 맞을 수 있다. 산이나 건물 같은, 바람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기 때문이다. 해상풍력 터빈은 육지로 수송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크기를 훨씬 더 키울 수도 있다. 육지에서는 3~4MW급을 설치하지만, 바다에서는 용량이 두 배가 넘는 8~12MW급까지 세우고 있다.

파리협정 제2조 1항은 각국의 모든 재원 흐름

을 저탄소 발전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본 원칙으로 작용한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이후 원자재 가격과 물가 상승, 높은 이자율 등으로 인해 해상풍력 산업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미국 IRA의 세액공제 규정 완화, 유럽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영향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된 사업들이 재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바람의 질도 좋은 편이다. 해상풍력을 야심차게 설치하고 있는 대만이 공급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과는 달리, 타워,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해양플랜트 시공 경험과 같은 산업도 잘 발달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해외 개발사들이 한결같이 꼽는 장점이다. 현재 상업용 해상풍력이 124.5MW에 불과하지만, 이보다 185배나 많은 약 27GW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해상풍력발전 단지의 운영 시에는 석탄, 가스 등의 타 전력생산 부문에는 필요한 연료비가 들지 않아 영업이익 등의 부가가치가 크다. 부가가치는 국민소득계정의 국내총생산(GDP) 개념과 일치하므로 해상풍력 운영 부문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확대는 우리나라 GDP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터빈이나 전력변환장치 등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해 국산화를 높여간다면 해상풍력 설치 시의 경제적 효과도 더욱 커질 수 있다.

바람을 동력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의 해상풍력은 대항해시대의 범선과 같다. 다른 점은 대항해시대의 범선이 식민지 수탈을 목적으로 세계를 누볐다면, 해상풍력은 자연이 주는 에너지를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인류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해 평화롭게 사용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상풍력이 탄소중립 시대의 주역이 되기를 희망한다.

22대 국회, RE100·CFE 방향성 분명히 해야

〈무탄소에너지〉

기자의 눈

전지성 기후에너지부 기자
jis@ekn.kr



으로 인한 발전사들의 손실 확대, 에너지요금 정상화 등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지난정부의 탈원전 논쟁과 마찬가지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 비중, RE100(Renewable Energy 100%, 재생에너지 100% 사용)이나 CFE(Carbon Free Energy, 무탄소에너지) 나를 두고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RE100을 대신해 원전 확대를 통한 CFE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제정세는 아직 신재생 에너지만을 활용한 제품 생산을 요구하는 RE100이 우세한 분위기다.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가경제를 위해 RE100을 과감히 수용하거나 정부가 CFE를 국제적으로 적극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전력시장의 위기는 물론 국제적으로 RE100과 CFE와의 간극 사이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출범한 CF연합에 기업들의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의 수출 주도형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치권이 중심을 잡고 방향성을 확실히 정해줘야 한다. 그러나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임기가 맞물리지 않은 상태에서 당정과 야당이 서로 견제하면서 힘겨루기를 하거나 개개인별로 연관된 이해관계 등 때문에 정책 해결이 뒤로 밀리는 느낌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표심 대결이 치열해 질 전망이다 만큼 당분간도 여야가 에너지 믹스를 향해 정책 대안에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1차 전기법 초안 발표가 지난해 말에서 총선 이후로 밀린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애초에 에너지 전문가가 국회에 없는 상황에서 전문적·현실적 논의가 아니라 정경으로만 그칠 수 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다가오는 22대 국회에서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이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을까.

에너지 경제의 힘, 삶의 근원

건설현장 공사비 갈등, 기준마련 시급

이슈&인사이트

Issue&Insight

박지훈

비즈니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3.3㎡당 공사비 단가가 1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크게 늘었고 심지어 1300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2022년 주거환경연구원이 전국 정비사업장 52곳과 리모델링 사업장 5곳의 3.3㎡당 평균 공사비를 조사한 결과 606만50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1.6배 가량 올랐다. 이처럼 조합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공사비가 증액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입찰보증금으로 조합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고자 하더라도 입찰보증금의 반환, 기존 시공사와의 법률분쟁,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을 위해 사업이 지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리한 공사비를 제시하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최근들어 원자재값 상승과 고금리 등 고물가 영향으로 건설현장은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중단 사태가 줄을 잇고 있다.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현장은 물론이고, 공공발주 사업 현장에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 공사계약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시공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서에 착공 이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방지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공사비 증액을 막고 있으며, 공공발주 사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항을 반영해 공사비 증액을 방지한다.

그러나 실제 공사비 갈등은 입찰에 의해 시공사를 선정한 후 관리처분인가 등을 받기 위해 공사도급계약 본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한다.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은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었고, 서울시의 경우도 지난해 7월1일부터는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다.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했다고 해서 바로 공사에 착공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명도 및 철거가 이루어져야 공사에 착공하는 것이기에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본계약은 관리처분인가 전에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기까지 최소 3~4년이 걸리기 때문에 시공사가 입찰참여해 제출한 공사대금이 물가에 맞지 않는 경우, 시공사는 입찰참여 시 공사대금보다 증액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조합의 입찰에서는 공사비가 증액되면,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늘어나고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공사비 증액에 반대하게 되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공사비로 계약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되는 상황이므로 공사비의 증액을 반드시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건축원가 상승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2항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시공사와 계약 체결 후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공사비 감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검증결과에 따라 공사비가 조정되거나 이를 강제하는 조항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공사비를 감액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사비 검증의 범위도 직접공사비에 제한돼 시공사가 간접공사비 명목으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조합 입장에서는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한 이상 소송을 통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취소 또는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약정한 금액을 임의로 감액할 수는 없어 별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현실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PF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의 입주, 중도금 대출 상환, 분양 시기 문제 등을 이유로 조합이 불리해지고, 시공사의 의도대로 공사비가 무분별하게 증액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증된 공사비로 조정 또는 합의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시공사들은 공사 중단은 무기로 공사비 증액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한테로 돌아갈 것이다.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시공사와 사업수익성 악화에 따른 과도한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조합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율해 줄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방안이 하루빨리 제시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제 www.ekn.kr

우)04516 서울 중구 새문안로 26 청양빌딩 5층	발행인 송용희 사장 임정효 편집국장 송영택 인쇄인 박태현
대표전화 02-850-0114 대표팩스 02-867-0453 광고문의 02-6749-3124 구독문의 02-6749-3125 MICE 사업문의 02-6749-3149 독자서비스센터 02-714-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경제부 02-6749-3117 · 산업부 02-6749-3114 · 금융부 02-6749-3172 · 자본시장부 02-6749-3170 · 유통중기부 02-6749-3147 · 건설부동산부 02-6749-3160 · 기후에너지부 02-6749-3140 · 국제뉴스부 02-6749-3173 · 전국부 02-6749-3119 · 종합편집부 02-6749-3127 · 디지털콘텐츠국 02-6749-31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9년 5월 26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 가-50065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24년, AI를 지배할 것인가, AI에 지배당할 것인가?

AI 시대의 생존 전략부터 비즈니스 마케팅의 AI 활용 방향까지 담았다

"2024년은 콘텐츠 제작 영역에서 보다 쉽게 AI를 활용하는 'AI 인터페이스'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The Last Mile(이용자 사용 편의성)이 극복될 것이다" - 강정수 (더코어 CSO)

"인구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당시의 인구전략은 무엇인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새로운 일상(New Normal)인가? 변하지 않는 일상(Post Normal)인가?" - 황성연 (닐슨미디어코리아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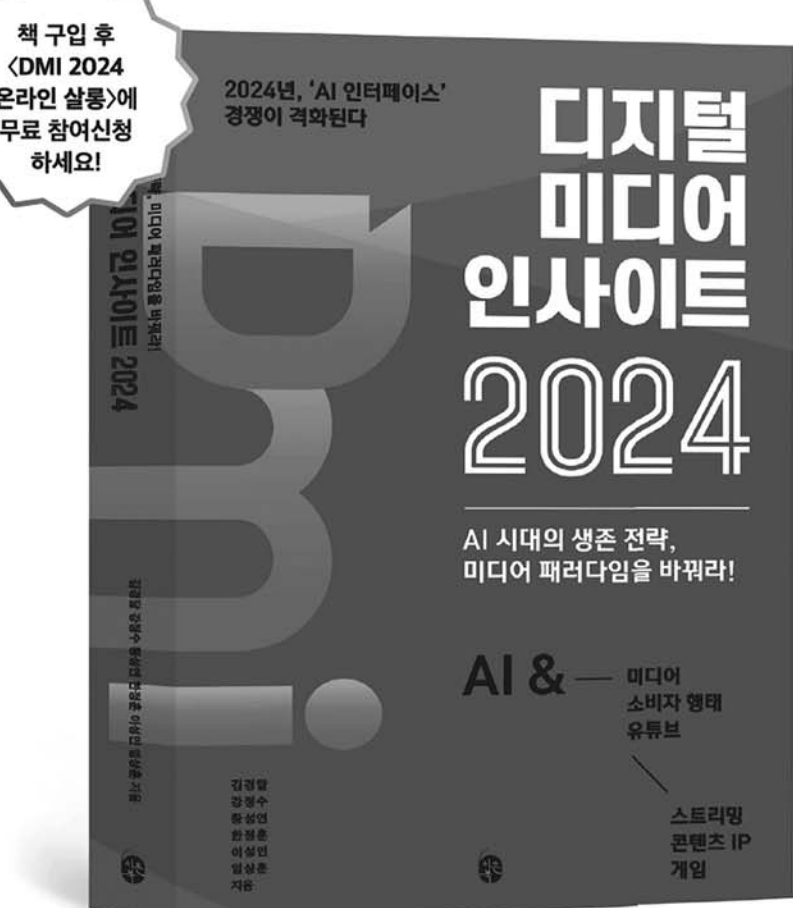
"2024년은 유튜브가 AI를 장착하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본격 성장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AI'와 '숏폼', '커머스의 트렌드를 앞세운 유튜브는 우리 생활의 기반 플랫폼으로 계속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 김경달 (네오터치포인트 대표)

"2024년은 AI와 방송이 만나는 동시에 스트리밍의 화려한 빈곤이 시작될 것이다. 세상은 스트리밍으로 바뀌지만, 누구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넷플릭스를 제외하고 어느 스트리밍도 안심할 수 없다" - 한정훈 (다이렉트미디어랩 대표)

"체험에 그치는 콘텐츠는 스쳐 지나가지만, 경험이 되는 콘텐츠는 IP가 된다! 사람들은 콘텐츠를 통해 어떤 경험을 쌓아가고 있을까? 이제는 서사 중심의 연계를 넘어 비서사적 경험까지 모두 아우르는 IP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

"리니지라이프 영토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더 이상 모바일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2024년에 <데이브 더 데이브>와 <P의 거짓>에 이어 스팀과 콘솔 시장에 한국 게임의 경쟁력을 입증할 후속작이 나올 것인가?" - 임상훈 (디스이즈게임 대표)

김경달 강정수 황성연 한정훈 이성민 임상훈 저 | 값 19,000원 | 이문복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2안길 16 삼성빌딩8 4층 | 전화 02-322-1412 | dmicon.com



6인의 국내 최정상급 전문가와 함께하는 북 컨퍼런스! 생생한 강연을 책으로 만난다!



세상을 바꾸는 금융

1학년이 된 아들에게

늦은 나이에 너를 만났지
그저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빠 너를 통해 배웠어

그런 너를 바쁜 엄마 아빠 때문에
아침 일찍 보내고 해질 무렵에 하고 시키는 요즘
아빠는 마음이 참 무거운데

“아빠 얼른 가! 학교 진짜 재밌어~”

씩씩하게 웃는 네 모습을 보면
먹고사는 게 뭐라고 어떤 날은 눈물이 날 것만 같아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날들이 다 추억이 되겠지?

그 시간이 언젠든 아빠는 언제나 널 위해
여기 있을 거다, 등갓길에 잡았던 손 그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네 곁에

**나에게 와줘서 고맙다
늘 봄 같은 우리 아들**

아이들과 함께 희망을 만드는
**Korea Better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이 함께 만드는 '돌봄 공백 없는 세상'

KB금융그룹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총 1,250억 원을 지원하여 2,256개의 '국공립 병설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을 신·증설하였고, 2027년까지 25개의 거점형 늘봄센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